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생활과학석사학위논문

# 30, 40대 미혼여성의 생활실태와 결혼의향 비교

-1인가구와 가족동거가구를 중심으로-

2014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지 혜

# 30, 40대 미혼여성의 생활실태와 결혼의향비교

-1인가구와 가족동거가구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진 미 정

이 논문을 생활과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지 혜

지 혜의 생활과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1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 국문초록

우리나라가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하면서 많은 연구들이 미혼성인들의 결혼지연현상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30, 40대 미혼여성들은 지난 10년동안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들의 거주유형특성을 보면 1인가구, 가족동거 유형으로 이분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성인이 되어도 결혼 전까지 부모와 동거하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통념상 30, 40대 미혼여성이 원가족으로부터 독립해서 1인가구를 형성하는 것은 비교적 최근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30, 40대 미혼여성들이 1인가구로서 생활하고 싶은 욕구와, 20대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결혼에 대한 기대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미혼여성으로서의 삶이 거주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고, 30, 40대 미혼여성의 거주유형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상의 연구문제를 밝히기 위해서 '여성가족패널(KLoWF) 2010년 3차 조사'자료 중 30, 40대 미혼여성, 즉 1인가구 49명, 가족동거 191명으로 총 240명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거주유형에 따라 생활실태와 가치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하였으며 독립변수들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한 후 30, 40대 미혼여성의 거주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이분형 로짓회귀분석방법을 실시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30, 40대 미혼여성들의 거주유형에 따라서 연령, 부모님 생존여부, 주거점유형태, 현재 하는 일, 결혼계획이 없는 이유, 성취지향성,

결혼필요성에 동의하는 정도, 결혼의향에 차이를 보였다. 즉, 본인의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부모님 모두 살아계신 경우, 가족과 함께 동거하는 미혼여성이 많음을 볼 수 있다. 또한 가족동거 미혼여성은 결혼계획이 없는 이유가 1인가구 미혼여성과 비교하여 다양하고, 결혼보다 성취를 지향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령과 교육수준을 통제했을 때 30, 40대 미혼여성의 거주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님 생존여부와 현재하는 일, 성취지향성과 결혼의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30, 40대 미혼여성이 일을 하지 않는 미혼여성보다 1인가구로 살 가능성이 더 높다. 반면에 결혼보다 자신의 성취를 우선시 하는 성취지향적 가치관을 갖고 있거나 결혼의향이 있는 30, 40대 미혼여성은 가족과 함께 거주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볼 때, 30,40대 미혼여성의 부모님 생존여부가 1인가구 거주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 이들에게도 부모님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30, 40대 미혼여성들의 생활실태와 결혼의향이 거주유형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30, 40대 미혼여성에 대한 정책으로 1인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과 결혼진입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30, 40대 미혼여성들을 위한 적극적인 결혼지원정책이 모두 필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표본수의 부족으로 인해 연구결과를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유의해야 하며, 특히 30, 40대 미혼여성 1인가구를 대변하기에는 수가 적어 거주유형에 따른 특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은 점이 있다. 그리고 30, 40대 미혼여성 1인가구에 대한 변인과 가치관 변인을 더 정교화

시키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남녀비교를 하지 못해 30, 40대 미혼남녀의 거주유형에 따른 결혼의향을 알아보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는 결혼적령기가 지난 30, 40대 미혼여성의 거주유형에 따른 생활실태를 비교하고 1인가구로의 거주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가치관적 요인을 파악하여 이들의 거주유형과 결혼의향과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선행연구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30, 40대 미혼여성들 중 1인가구로 살 것을 선택한 이들과 가족과 동거하는 30, 40대 미혼여성들의 생활실태와 가치관의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연령이 같은 30, 40대 미혼여성일지라도 거주유형에 따라 정책적 노력들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요어 :** 거주유형, 결혼의향, 미혼여성, 성역할태도, 성취지향성, 1인가구

**학 번 :** 2011-23707

# 목차

## 국문초록

I. 문제제기 .....	1
II. 선행 연구 고찰.....	5
1. 미혼여성의 생활실태와 관련 정책 .....	5
1) 미혼여성의 증가배경 .....	5
2) 미혼여성의 생활실태 .....	7
3) 미혼여성에 대한 정책적 지원.....	11
2. 미혼여성의 거주유형에 대한 선행연구.....	15
1) 거주유형과 사회인구학적 변인.....	15
2) 거주유형과 가족관련변인 .....	16
3) 거주유형과 생활시간 및 여가활동 변인.....	17
4) 거주유형과 가치관.....	18
5) 거주유형과 결혼의향 .....	22
III. 연구문제 .....	25
1. 연구문제 .....	25
IV. 연구방법.....	26
1. 연구대상 및 자료.....	26
2. 변수의 정의와 측정 .....	27
1) 종속변수.....	27
(1) 거주유형 .....	27

2) 독립변수.....	27
(1) 사회인구학적 변인 .....	27
(2) 가족관련 및 주거변인 .....	28
(3) 취업 및 소득변인.....	30
(4) 생활시간 및 여가활동변인 .....	31
(5) 가치관 및 결혼의향.....	31
3. 분석방법 .....	33
 V. 연구결과 및 해석.....	34
1. 연구대상자의 거주유형에 따른 생활실태 및 가치관 차이 .....	34
1) 사회인구학적 변인.....	34
2) 가족관련 및 주거변인.....	35
3) 취업 및 소득변인 .....	37
4) 생활시간 및 여가활동변인.....	39
5) 가치관 및 결혼의향 .....	41
2. 주요변수들간의 상관관계 .....	45
3. 30, 40 대 미혼여성의 거주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46
 VI. 결론 및 논의 .....	49
 참고문헌.....	56
부록.....	67
Abstract.....	82



## 표 목차

<표 V-1> 연구대상자의 거주유형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변인 .....	35
<표 V-2> 연구대상자의 거주유형에 따른 가족관련 및 주거변인 .....	37
<표 V-3> 연구대상자의 거주유형에 따른 취업 및 소득변인 .....	39
<표 V-4> 연구대상자의 거주유형에 따른 생활시간 및 여가활동변인 ..	42
<표 V-5> 연구대상자의 거주유형에 따른 가치관 및 결혼의향 .....	44
<표 V-6> 주요변수들간의 상관관계 .....	45
<표 V-7> 30, 40 대 미혼여성의 거주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48

## I. 문제제기

우리나라가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하면서 많은 연구들이 미혼여성의 증가원인과 결혼지연 현상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평균 초혼 연령은 꾸준히 높아져 2012년 남성과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각각 32.44세, 30.24세가 되었다. 초혼 연령의 상승세 속에서 30, 40대 미혼여성의 수는 2000년 36만 7천명에서 2010년 98만 4천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통계청, 2012).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주로 기혼자들의 출산장벽을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자녀 돌봄지원 강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조성,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지원 등이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자녀가 있는' 여성들에게 중심이 맞추어져 있어 빠르게 증가하는 미혼율을 간과하고 있다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여성의 미혼율이 10% 증가하면 기혼자의 출산율이 유지되더라도 합계출산율은 10%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이성용, 2012; 변용찬, 김동희, 이송희, 2010; 최은영, 박영실, 2009). 은기수(2005)는 우리나라의 출산력 변화가 결혼연령의 상승으로 인한 시기의 변화로 인한 것임을 파악하고 이러한 시기의 변화에는 미혼여성들이 결혼으로 이행해 가는 시점의 변화가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를 보면, 30~44세 미혼여성들의 36.7%가 결혼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반면, 51.65%가 유보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의향이 있는 비율은 55.7%로서 30,40대 미혼여성들이 결혼에 대한 기대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만, 남성에 비해 결혼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적령기가 지난 미혼여성들의 증가와 함께 이들의 특성도 다양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는데 그 중 가시적 변화가 미혼여성의 거주유형이다. 미혼여성들의 거주유형을 살펴보면, 30, 40대 미혼여성 1인가구 형성은 2000년 12만명에서 2010년 31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부모와 동거하는 30, 40대 미혼여성은 2000년 13만7천명에서 2010년 41만3천명으로 3배 이상 증가된 것으로 보아 미혼여성들의 거주유형이 가족동거 외에도 1인가구가 상당수 형성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아직 우리나라는 성인이 되어 직업을 갖고 있어도 결혼 전까지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미혼여성의 경우 사회적 통념상 부모와의 동거는 자연스러운 가구형태로 인식된다(정경희, 남상호, 정은지, 이지혜, 이윤경, 김정석, 김혜영, 진미정, 2012; 이진하, 최연실, 2006). 이에 비해 새로운 사회적 현상인 미혼여성 1인가구의 증가는 아직 관심이 부족하다.

충분한 경제력을 확보하여 홀로 독립해서 생활하려는 미혼여성 1인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연구들도 늘어가고 있다. 미혼여성 1인가구에 대한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 첫 번째는 미혼여성 1인가구의 동기요인과 특성에 대한 연구이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안정이 1인가구 거주가능성을 높게 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실증적 연구결과들은 상반된다. 미혼여성 1인가구의 소득 수준이 낮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고가 있는 동시에 높은 연봉 수준을 받는 미혼여성들이 증가한다는 결과도 있다(이성용, 2013; 심영, 2002; 김순옥, 2005; 김혜영, 2007, 이소영, 황선진, 200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정경희 외, 2012)에 따르면, 30, 40대 미혼여성들이 혼자 사는 이유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직장과 학업 때문(56%)'이며, 그 다음이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어서(32.5%)'로 나타나 이들이 미혼여성으로 독립해서 사는 이유가 미혼남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반대로 미혼여성의 경우 미혼남성보다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김정석, 2006). 미혼여성 1인가구의 이미지에 대한 연구도 양면성을 띠고 있다. 자유로운 시간사용과 여유로운 소비를 통해 트렌드를 선도하는 집단으로서의 이미지와 심리적 외로움과 사회적 소외집단으로서의 이미지가 공존한다(김경원, 김태현, 2005). 이와 같이 미혼여성 1인가구의 이미지는 양면적이어서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정책을 시행할 때 이미지에 따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1인가구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30, 40대 미혼여성들이 가족으로부터 독립해서 혼자 사는 것을 선택하게 한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미혼여성 1인가구의 가치관과 결혼의향에 대한 연구이다(진미정, 정혜은, 2010; 은기수, 2001). 1인가구로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미혼여성들은 혼자 사는 것을 편하고 자유롭게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희망을 보였으며, 결혼이 개인의 성장발전에 방해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보여주는 연구(장현숙, 2002)가 있는가 하면, 연령과 소득이 높을수록 혼자 사는 여성의 만족도가 높으며 결혼보다 편익이 높은 1인가구로서의 생활을 선호한다고 밝힌 연구도 있다(박충선, 2002). 또한, 미혼여성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결혼에 대한 거리감도 진다고 본 연구도 있다(김정석, 2006).

미혼여성 1인가구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2000년대 들어서 시작되었으나 정책지원대상으로는 여전히 소외된 상태로 볼 수 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미혼여성 1인가구 정책은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 1인가구 종합지원 대책'이 유일하다. '싱글여성 전용 안심주택', 범죄예방시설 확충, 싱글여성 커뮤니티 지원 등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미혼여성 1인가구들의 생활안정에 대한 정책욕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이들을 위한 결혼지원정책은 소극적이고 부족한 편이다. 미혼여성의 거주유형 및 특성에 따라 생활실태와 결혼의향이 다르다면 결혼지원정책과 생활안정 지원 정책이 모두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혼여성을 중점에 둔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인해 자칫 정책대상에서 소외될 수 있는 30, 40대 미혼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생활실태와 결혼의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특히 기존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40대 미혼여성을 포함하여 이들의 가족관계, 취업, 생활시간, 가치관 등에 관련된 실태를 거주유형에 따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거주유형에 따른 생활실태와 결혼의향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30, 40대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선행 연구 고찰

이 장에서는 먼저 30, 40대 미혼여성의 증가배경과 생활실태를 살펴보고, 미혼여성과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국내정책에 대한 선행 연구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어서 30, 40대 미혼여성의 거주유형과 관련한 변인들에 관한 선행 연구를 고찰하고자 한다.

### 1. 미혼여성의 생활실태와 관련 정책

#### 1) 미혼여성의 증가배경

미혼(未婚)이란 ‘아직 결혼하지 않음. 또는 그런 사람’이란 뜻(표준국어대사전, 2010)으로 ‘아직’이란 말 속에 결혼을 하는 것이 당위적인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결혼하지 않은(unmarried)’에 개념을 맞추어 ‘미혼(未婚)’이란 용어대신 가치중립적 용어인 ‘비혼(非婚)’이라 호칭하는 추세가 전개되고 있다(강은영, 2010). 하지만 ‘비혼’은 이혼, 사별, 미혼 모두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의 대상과 일치하지 않는다. 결혼경험이 없는 30, 40대 여성은 ‘비혼(非婚)’보다는 ‘미혼(未婚)’의 의미와 일치하므로 이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2010년 인구총조사의 연령별 남녀혼인상태 인구 구성비 자료를 통해 미혼여성의 최근 현황을 살펴보면 30세 이상의 미혼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5년과 2010년 사이의 미혼여성의 증가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5년 보다 30~34세의 미혼율은 증가하여 2010년 29.1%, 35~39세는 2010년 19.7%이다. 생애미혼율로 간주할 수 있는 40세 이상 여성의 미혼비율도 2010년 40~44세는 10.3%, 45~49세는 3.3%가 되었다. 평균 초혼 나이인 30세 전후 25~34세 미혼여성과 기혼여성의 수를 비교하면 2010년에 각각 174만명과 177만명으로 거의 동일한 수준이 되었다. 이러한 통계를 볼 때, 미혼인구로서의 30, 40대 여성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미혼여성들의 증가를 두고 다양한 원인진단이 있다(유홍준, 현성민, 2010; 우해봉, 2009; 은기수, 1999). 우선 교육기간의 연장, 취업의 증대와 미혼여성의 증가는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그 연관성이 입증되었으며(김혜영, 선보영, 김상돈, 2010; 박경숙 외, 2005), 여성들의 경제적 지위와 미혼여성을 대하는 사회적인 인식이 개선 된 것을 원인으로 보기도 한다(문선희, 2012; 김혜영, 선보영, 2011; 은기수 외, 2005; 은기수, 2001; ).

박경숙 외(2005)의 연구에서 1990년 이전 결혼코호트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초혼시기가 늦어졌지만 1990년부터 1997년 사이에 결혼한 여성들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초혼시기가 빠르게 나타났다. 하지만 1998년 경제위기 이후에 결혼한 여성들에서는 교육의 효과가 약화된 것을 통해 미혼여성의 증가가 여성들 스스로 경제활동 참여 동기가 커지고 결혼에 대한 규범적 태도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김경화 2004). 즉, 고학력, 전문직 여성과 같이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여성들에 의해 주도되거나 미혼남성들의 시장력이 약화되면서 일인생계부양모델의 한계를 가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미혼여성의 증가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다. 홍콩, 대만, 싱가포르, 일본 등 아시아 선진국에서도 미혼여성의 증가가 아시아 선진국들의 합계출산율은 모두 1.23이하로서 222개 비교대상 국가 중 최하위권을 형성하고 있다(CIA, World Factbook, 2011; 김영철, 2011). Hiromi & Catherine(2012)는 홍콩과 도쿄에서도 미혼여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홍콩의 2010년 미혼여성은 30~34세 38.6%, 35~39세 21.7%이며 도쿄는 그보다 높은 40.1%, 28.7%임을 밝히면서(Key statistics 2011; Statistics Bureau, 2011) 그 원인으로 홍콩과 도쿄에서도 여성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회적 규범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 2) 미혼여성의 생활실태

미혼여성들의 생활실태를 알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전체 미혼여성의 생활실태는 2010년 여성의 만혼화와 저출산에 관한 연구(김혜영 외, 2010, 이하 여성의 만혼화 연구)와 2012년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의 결과(김승권 외, 2012, 이하 출산동향조사)를 바탕으로 살펴볼 것이다. 또한 1인가구 미혼여성의 생활실태는 2012년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정경희 외, 2012, 이하 보건사회연구원)연구와 서울시 비혼여성 1인가구 정책지원방안 수립 연구(이성은 외, 2012, 이하 서울시 1인가구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① 인구학적 특성

미혼여성의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출산동향조사에서는



20~24세가 40.6%로 가장 많았지만, 여성의 만혼화 연구는 결혼적령기가 지난 29세~44세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29~34세가 53.5%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으며, 서울시 1인가구 연구 또한 30~34세가 36.4%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다. 출산동향조사를 제외한 두 조사에서 미혼여성들의 연령분포가 30대 초반에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출산동향조사와 여성의 만혼화 연구의 미혼여성들의 교육수준을 보면 대졸이 이상이 95.49%이고, 보건사회연구원조사와 서울시1인가구조사도 대졸이상이 73.15%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위의 조사들 모두 30세 이상 미혼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 ② 가구구성 및 주거현황

미혼여성들이 누구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출산동향조사는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20~24세 74.3%에서 35~44세가 42.1%로 나이가 많을수록 그 비율이 줄어들어 이는 여성의 만혼화 연구와도 유사하다. 반면 미혼여성의 연령이 높을수록 원가족인 부모나 형제자매와 거주하는 비율은 감소하지만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원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주택소유 유형은 여성의 만혼화 연구에서만 질문을 하였는데 '부모님 소유 자택'에 거주한다는 응답이 71.9%로 가장 많아 대다수의 미혼여성이 부모소유의 집에 함께 거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인가구 미혼여성들의 주거점유 형태는 전세가 44%, 월세가 43.7%로 나타났으며 1인가구 미혼여성이 현재 거주하는 주택자금 마련에 대한 응답으로 가장 높은

것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은 경우가 46.8%로 가장 높고, 혼자 힘으로 마련한 경우도 38.7%로 꽤 높게 나타났다. 도시지역의 총소득대비 주거비용이 1인가구가 다인가구와 비교하여 12.2%가 높은 것으로 보아 1인가구의 월세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보여진다(황정임 외, 2013). 따라서 1인가구 미혼여성들이 가족동거 미혼여성들보다 주거에 드는 비용이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 ③ 미혼여성의 가족관계와 정서적 지지

미혼여성들의 가족관계를 경제적 교류와 정서적 지지 측면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출산동향조사의 미혼여성들은 33.7%가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전혀 받지 않으며, 그 중 30~44세 미혼여성들은 61.8%가 전혀 도움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0, 40대 미혼여성들의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는 낮은 편으로 보여진다. 1인가구 미혼여성들은 교육수준과 월평균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부모와의 접촉빈도(전화, 만남 등)가 높고 형제자매와의 접촉빈도는 연령이 젊을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자주 이루어짐을 보였다(김혜영, 2007). 하지만 미혼여성의 정서적 지지는 가족동거 미혼여성과 1인가구 미혼여성 모두 자신의 부모(18.3%)와 형제자매(12.9%)보다는 사랑하는 사람(37.6%), 친구(28.8%)들과 함께한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 ④ 취업형태 및 소득현황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모든 조사에서 미혼여성의 약 70%가 취업상태이며 상용근로자가 비율도 약 76.7%로 가장 높다고 하였다.

조사들에서 나타난 공통점은 저연령층일수록 사무직 종사 비율이 높고 40대 이상에서는 서비스 및 판매직 종사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미혼여성 전체의 평균근로소득은 177.7만원이며, 150~200만원이 43.9%로 가장 높고, 250~350만원이 24.5%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만혼화 연구는 미혼여성의 취업율이 96.5%로서 동일연령대의 기혼여성 48.8%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는 특징이 있다.

#### ⑤ 여가활동

미혼여성들에게 여가생활은 이들에게 생활의 활력소가 되며 주로 친구, 동료와 여가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고 있었고, 활동시기는 주말이 2-3시간 정도로 나타났다(곽한병, 이기찬, 2005). 서울시 25~49세 미혼여성 1인가구의 여가생활 만족도는 41.8%가 충분하다고 하였으며 평일 저녁에는 퇴근 후 충분한 여가시간이 없기 때문에 '휴식'과 'TV시청'이 74.7%로 주로 실내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충분한 여가시간이 있는 주말에는 '친구/동료와의 만남'이 36.0%로 가장 높고, '집안일'과 '휴식'순으로 나타났다. 충분히 시간이 확보되는 주말에도 1인가구 미혼여성들은 다양한 외부활동 보다는 '영화보기'와 같은 '문화생활'을 하는 비율만이 높게 나타났다.

### 3) 미혼여성에 대한 정책적 지원

우리사회는 급격한 노동환경변화로 인한 '남성1인 생계부양모델'에서 '맞벌이 모델'로 변화하는 시기로서 이에 따라 가족정책은 여성노동력의 경제활동참여 증진에 집중해 왔고, 이로 인한 돌봄의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세웠다. 보육시설확충, 여성의 취업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강화처럼 주로 기혼자들의 출산장벽 제거와 보육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존 가족정책의 큰 틀은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임금근로 여성'에 포커스를 맞추었기 있기 때문에 여성들의 다양한 현실을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왔다(장혜경, 김은지, 김영란, 김혜영, 정재훈, 2011; 배은경 외, 2010).

다시 말해서,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지 않은 여성들에게는 정부 서비스로부터 혜택이 돌아가지 않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게 되었고,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나 부모를 봉양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한 여성들은 가족정책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혼여성에 대한 지금의 정책은 취업현실의 구조적 장애 요인으로부터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미혼 여성들의 직장적응과 커리어 개발을 위한 역량을 배양하고 양성평등한 직장문화의 확산을 통해 여성들의 '경력단절'없는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3). 이에 비해 결혼의향을 가진 미혼여성에 대한 결혼지원 정책은 미흡한 편이다.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미혼여성들과 더불어 가족으로부터 독립하여 1인가구를 형성하여 살고 있는 미혼여성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가족정책은 일가정 양립, 자녀양육,

노인 돌봄 등에 집중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부양하고 돌보는 역할을 해야 하는 1인가구 미혼여성들은 취약한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김소영, 2013; 장혜경, 홍승아, 선보영, 2012).

우리나라의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정책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며, 그마저도 노인1인가구를 위한 정책들로서 노인돌봄과 기초생활지원에 관한 것이다. 최근에 들어서 서울시가 '여성 1인가구 종합지원 대책'을 발표 함에 따라 1인가구 미혼여성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주거, 안전, 건강, 일자리, 커뮤니티, 불편해소 등 6개 분야로 이루어져 있어 혼자 사는 여성들을 다각도로 지원한다(서울여성정책, 2012). '싱글여성 전용 안심 임대주택' 과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싱글여성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무인택배 시스템을 설치 운영한다. 또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예방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성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확대, '여성 1인가구 인턴십'을 추진하고 싱글여성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있다.

미혼여성 1인가구에 대한 실행되는 정책은 적지만 최근 1인가구 연구들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다(김소영, 2013). 정책들을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주거정책, 경제정책, 안전, 사회관계망, 여가 서비스, 가족형성 지원정책이 있다. 첫째, 주거권 확보를 위한 정책으로는 성인지적 관점의 마을 세입자 권리센터 추진,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주택관련 조례 제.개정, 임대주택 활성화 시범 사업 등 1인 가구를 위한 전세자금대출 지원,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강민규, 2011; 김리영, 노희순, 2011; 이성은, 2012), 또한 사적인 개인공간과 함께 공용공간을 함께 나누어 활용할 수 있는

코하우징을 제시하였다(강미선, 2012; 정재훈, 2012). 둘째, 경제적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는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위한 고용안전 지원(김은지, 2012), 지역커뮤니티에 기초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직업교육 훈련실시(이성은, 2012)가 있다. 셋째, 여성 1인가구를 위한 안전정책으로 'Universal Design'의 개념을 제시하여 주거의 안전성 기준을 확립할 필요성을 제안하고(신은진, 안건형 2010; 변미리, 2012), 1인가구를 위한 자조모임지원, 자원봉사활동기회확대, 1인가구의 사회권 확보를 위한 권역별 네트워크 구성 등이 1인가구의 사회관계망 지원을 위해 제안되었다(김혜영 외, 2007; 이성은, 2012). 이에 더하여 1인가구의 소외를 예방할 수 있는 지역 거점센터를 만들어 상담서비스, 이웃 만들기 서비스 등을 개발해 네트워크 형성 프로그램을 제시했다(변미리, 2011). 넷째, 1인가구를 위한 복지시설과 녹지시설을 확충하고, 여가시간에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빈도가 높은 1인가구이지만 이러한 시설이 도심 내에 치중되어 있으므로 문화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제안했다(신은진 외, 2010). 마지막으로 가족형성지원정책은 결혼진입 장벽 해소와 결혼문화 개선(정경희 외, 2012), 양육과 돌봄의 사회화 정책으로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며 가족을 이루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함을 강조했다(김은지, 2012).

이상의 정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주거정책과 복지시설 확보 등은 구체적으로 나와있지만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가족형성지원정책은 다른 정책들과 비교하여 아직 모호하다. 여성이 혼자 살아가는데 여전히 불안감이 있는 우리사회에서 미혼여성 1인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과 동시에 가족형성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보다는 미혼남녀의 결혼을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빠를 수 있기 때문이다(오창섭, 최성혁, 2012, 김영철, 2011; 조희금, 고선강, 어성연, 2009). 이를 위해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조성을 목적으로 2007년 9월 인구보건복지협회는 '결혼지원센터'를 개설하였다. '결혼지원센터'는 결혼매칭웹사이트와 결혼전문상담실을 오픈하여 운영을 해 오다가 지난 2011년 예산문제로 폐쇄되고,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결혼 및 출산장려 정책은 다음의 몇 가지가 있다.

첫째, '신혼부부 주택 구입·전세자금 지원'과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정책으로 근로자서민주택 구입자금,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이 있으며(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2012), 둘째로, 각 시, 군, 구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결혼준비 프로그램과 가족생활교육 및 가족상담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다. 그리하여 결혼을 하고자 하는 미혼성인들이 결혼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 결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촌 미혼남성 혼인지원'과 '시민합동 결혼식' 등이 있다.

이 같은 정책들이 있지만 미혼남녀가 결혼을 하지 못하는 원인인 '적당한 상대를 찾지 못 함'과 '주택마련' 등 경제적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 2. 미혼여성의 거주유형에 대한 선행연구

### 1) 거주유형과 사회인구학적 변인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는 미혼여성의 가족동거보다 부모동거를 중심으로 논하였기 때문에 용어사용에 있어서 가족동거와 부모동거를 혼용하지 않고 구분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미국의 센서스 조사에 따르면 2012년 20~34세 미혼여성 중에서 21%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고 했다(Goldscheider & Goldscheider 1999; U.S. Census Bureau 2012). 이중 대학을 졸업할 나이인 25-29세의 미혼여성이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하면서 부모동거 미혼여성들의 교육수준은 대학교 이상이 39.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고등학교 졸업이 29.0%를 차지하고 있어 금융위기 이후 대학졸업자들이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급격히 늘어났음을 밝혔다(Zhenchao, 2012).

이영분 외(2011)의 연구에서도 부모와 함께 사는 미혼여성의 연령으로 25-29세가 61.3%로 가장 높았으며 이들의 교육수준도 대학교 이상이 86.1%로 나타났다. 미혼여성의 1인가구의 경우 20대가 47.0%, 30대 30.6%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교육수준은 초대졸 이상으로 고학력자 비중이 부모동거 미혼여성과 마찬가지로 높게 나타났다(이창순, 2012; 김혜영 외, 2007). 20후반과 30대 미혼여성의 경우 취업 또는 고학력화의 이유로 1인가구를 형성하여 높은 이동성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김나영, 신영미, 2010). 이는 학업과 직장 등의 이유로 1인가구 형성시기가 빨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며, 불안한 노동시장으로 인해 부모와 동거하며 독립의 시기를 연장하고 있는 성인역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 거주유형과 가족관련변인

결혼 적령기가 지난 미혼여성들은 일반적인 생애 주기에서 벗어난 집단으로서 다소 '일탈적인 삶'으로 묘사되거나 미혼여성들의 다양한 가족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경향이 있었다(Allen & Pickett, 1987).

30, 40대 미혼여성을 바라보는 고정관념들 중에 이들은 가족보다 자신의 일이나 자유를 우선시 하는 개인화된 가치관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지만(류경희, 왕석순, 2010), 양은주(2005)는 가족과 함께 사는 미혼여성들은 가족과 결속이 강하고 밀착되어 정서적 지원이 원가족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1인가구 미혼여성들 또한 원가족과의 친족행동 정도가 다른 미혼여성들에 비해 비교적 높음을 보였는데(김순옥, 2002), 이와는 달리 거주유형보다는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독립 여부가 미혼여성의 가치관에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 연구도 있다.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김승권 외, 2012)에서 부모와 동거하거나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는 미혼여성들과 경제적으로 독립한 미혼여성들은 결혼에 관한 가치관의 차이를 보였다.

부모님의 생존여부에 따른 미혼여성들의 차이를 살펴보면, 부모 중 한 분만 계실 경우 불안한 가정으로부터 빨리 독립하려는 성향이 결혼으로 이어져 일찍 결혼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Wolfinger, 2003; Axinn & Thornton, 1992). Raymo(2003)는 미혼여성의 형제 수가 많을수록 부모님의 한정된 자원을 두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독립을 서두른다고 하였다. 여기서의 독립은 두 가지 모두 가능한데 결혼을 빨리 하거나 1인가구를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3) 거주유형과 생활시간 및 여가활동 변인

미혼여성의 시간사용의 관리는 생활의 질을 결정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미혼여성들의 생활실태를 나타내 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문숙재, 2005). 시장노동, 가사노동, 여가활동시간으로 이루어진 미혼여성의 생활시간은 기혼여성과 비교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이를 알아 보는 것은 개개인의 태도와 가치관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혼여성의 부모동거 여부에 따른 생활시간차이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White & Roders(1997)는 부모와 동거하는 것은 부모와 성인자녀 사이에 생활 속 많은 자원이 교류한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면서 자녀가 독립하여 부모와 멀리 떨어져 살수록 그 교환은 적어진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김혜영(2005)은 1인가구의 생활실태 조사에서 미혼여성들이 부모에게 받는 경제적, 생활적 지원이 얼마나 있는가를 살펴보았는데 두 항목 모두 거의 없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여성 1인가구의 시간활용을 살펴보면 평일과 주말이 다소 차이가 나타난다. 평일에는 친구들과의 교제를 하기보다 집에서 혼자 보내는 경우가 많으며 휴식(15.8%)이나 TV시청(25.2%)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주말의 여가시간을 살펴보면 미혼여성 1인가구의 경우 다양하게 보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V시청 과 휴식'은 여전히 높은 비중(33.0%)을 차지했지만 친구교제(13.9%), 종교활동(13.9%), 취미(4.5%), 운동(3.8%)으로 주말시간을 보내는 비율이 평일보다 높아졌다(김혜영 외, 2007, 유소이, 최윤지, 2002).

2011년 LG경제 연구원이 실시한 한국, 일본 30, 40대 1인가구

비교조사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남녀1인가구들의 주 관심사는 이성교제, 결혼, 직장이었으나 일본의 남녀1인가구는 취미, 여가,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사회현상의 차이로서 일본은 전국민적으로 취미나 여가에 대한 강한 선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 개인의 성취감과 자아실현 욕구를 취미활동에 몰입하여 해소하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박정현, 2011).

#### 4) 거주유형과 가치관

Stein(1981)의 분류에 따르면 미혼독신자들도 다양한 특성을 지닌 구성원들의 집합임을 강조하면서 기존의 미혼독신자들에 대한 고정적인 이미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부여하였다. Stein의 유형분류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현재의 미혼상태를 선택하였는가 아닌가에 관해 주목한 점이다. 이렇게 구분함으로써 '결혼을 하지 못 한' 사람들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 결과 지금의 미혼여성들을 자발적-일시적(일정 기간 결혼을 연기함), 비자발적-일시적(적극적으로 결혼을 희망함), 자발적-지속적(결혼할 의향이 없음), 비자발적-지속적(과거에 결혼을 희망하였으나 독신을 수용함) 유형중의 하나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미혼여성들은 결혼을 여러 가지 삶의 방식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꼭 이루어야 할 생애과정의 과업으로 생각한다. 또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과정을 겪는다. 예를 들어 20대에는 결혼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생각이 30, 40대에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과 같이 결혼에 대한 태도변화는 미혼여성들이 결혼에 대해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양은주, 2005).

### ① 결혼필요성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 정도를 결혼에 대한 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우선 원가족과 친족관계, 타인, 대중매체를 통한 결혼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인 이미지로 일반화된 태도로서 결혼에 대해 갖는 총체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다(유가호, 1989). 결혼에 대한 태도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며 결혼에 대한 동기부여로서 결혼지위로 들어가고자 하는 의사로 볼 수 있다.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하며 성인이 되면 가족을 이루고 살아야 한다는 결혼규범은 한국사회에서 성인의 의무이면서 통과의례로서 받아들여졌다(문소정, 1994). 미혼여성들은 결혼적령기가 되면 결혼을 당연히 하는 것으로 여겼고(김경신, 이선미, 1998), 대다수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졌었다(김혜선, 신수아, 2002). 그러나 최근 미혼여성들에게 결혼은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는 의식과 태도가 증가하고 있다(김경신, 이선미, 1998; 이삼식 외, 2005). 가족중심적 사고에서 점차 개인중심적으로 가치관이 바뀌어 감에 따라서 결혼의 당위성이 약화되고 있다. 결혼의 당위성이 약화되어감에 따라 결혼의향 및 결혼시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거나 연기하는 경향이 커졌다.

박민자(2004)는 결혼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결혼에 대한 압박이 완화되고 있다고 했다. 사회적 요구보다는 개인의 필요와 욕구에 의해서 결혼이 선택되며 애정보다는 경제적 조건이 더 중요시해졌다고 밝혔다. 결혼에 대한 이러한 태도변화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특히 결혼적령기가 지난 미혼여성들에게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이삼식, 2006; Ferguson, 2000). 이와는 반대로 몇몇 연구에서는 미혼여성의 결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라고 밝히고 있다(장진경, 2005; 신호영, 방은령, 2007).

## ② 성역할태도

양성평등한 성역할 규범의 미정립은 미혼여성의 증가를 불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McDoanld(2000)는 가정내의 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을 거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역할 규범이 강한 동아시아에서 이들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Nemoto(2008)는 일부 일본여성들은 결혼과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결혼으로부터 나오는 전통적인 성역할이 결혼을 거부하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했다. 이와 반대로 야마다 마사히로(2004)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에 비해 '전업주부 지향성'이 쇠퇴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소득이 많은 남성과 결혼한다면 자녀가 태어나면 일을 그만 둘 것이라는 여성들이 많다는 점을 들었다.

우리나라의 30, 40대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교육수준, 소득, 취업여부와 관계 없이 성구분적인 가치를 부정하였으며 이는 동일 연령대의 기혼여성들보다 성구분적인 남녀역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더 강한 것으로 밝혀졌다(김혜영 외, 2010). 그러므로 미혼여성의 성역할태도에 따라서 결혼의향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결혼에 대한 인식과 성역할 정체감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갖고

있는 대상자일수록 미혼으로의 자발적 선택 가능성은 감소하고 진보적 성역할 태도를 갖고 있을수록 자발적으로 미혼상태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하였다(Davies, 2003; 양정선, 2012, 양명숙, 1996). 30, 40대 미혼여성의 경우 연령효과로 보수적 성역할태도를 갖거나 미혼이기 때문에 진보적 성역할태도를 갖고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 ③ 성취지향성

미혼 여성들은 다른 곳에서 보다 자신들의 일에서 성취감과 만족감을 발견한다. 여기서 '일'은 미혼여성들에게 성취감을 획득하게 하고 사회적 관계를 공고히 하며 자아를 실현할 수 있게 한다(Frankle, 2005). Virginia & Dianne(1995)의 중년미혼여성들의 삶의 만족감연구에서 미혼여성들의 삶의 만족감을 높이는데 유의미한 요인 중 첫 번째는 일로부터 오는 성취라고 하였다. 교육수준이 높거나 직업적 성취욕구가 큰 미혼여성들에게 있어서 경력은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으며 결혼과 출산은 미룰 수 있지만 자신의 경력은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양은주, 2005; Hoffnung, 2004; Blossfeld & Huinink, 1991; ).

Trang(2011)은 여성들의 경우 사회적으로 약자로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경제적 자립을 이루려고 하며 이것이 바로 임금근로여성들을 증가시켰다고 했다. 그러므로 일을 시작한 여성들은 경력에 대한 욕구를 자연스럽게 갖게 되며 결혼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미루게 된다고 하였다. 사회에 막 진입한 젊은 여성들은 일, 결혼, 출산에 대한 욕구가 다 있었지만 한번 노동시장에 들어서게 되면 결혼과 임신을 결정하기 보다 일에 대한 기대를 더 하게 된다고 하였다(Andrew, 1980). 또한 미혼

여성들에게 있어 '일'은 '혼자 살아가게 하는 힘', '자신감', '자아실현'을 확인하게 해주며 보람을 느끼게 한다(강은영, 2010; 양은주, 2005; Glick, White & Goldscheider, 2006). 그러므로 이들은 의도적으로 결혼을 피한 자발적 미혼여성들이 아니라 성취지향적으로 일에 몰두하다 보니 결혼과는 멀어진 상태로 볼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야마다 마사히로(2004)는 일본의 미혼여성들이 가족과 함께 사는 이유는 낮은 소득으로 혼자 살기는 힘들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25~35세의 여성 미혼자들 대부분이 연봉이 낮은 일반 사무직이나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많은 것을 볼 때 미혼여성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여성은 적다고 했다.

## 5) 거주유형과 결혼의향

결혼의향은 결혼을 하고 싶은 의사를 말하거나 결혼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의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결혼의향은 일정 연령까지는 선택의 의미로 해석가능하며 또 다른 연령대에서는 결혼의향이 결혼의 가능성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살펴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30, 40대 미혼여성의 결혼의향은 선택과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어야 한다.

가족동거가 미혼여성의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상반된 결과를 갖고 있다. Marcus(2013)는 20대 중후반의 부모와 동거하는 미국청년들에 대한 연구에서 아시아계와 히스패닉계 미혼여성들이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백인청년들에 비해 높았고 이들의 결혼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아시아 미혼여성들이 부모와의 동거비율이 높은 이유는 백인여성들에 비해 교육기간이 길고 결혼의향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 반면에 히스패닉 미혼여성들은 사회 경제적 자원이 적기 때문에 부모와의 동거비율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여성들은 생활비를 낼 의무가 없으며 부모의 보살핌아래 근심 없이 생활할 수 있는데 반해 결혼은 아무런 이득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때문에 결혼보다는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여성들이 증가한다고 보고 있으며(Retherford 외, 2001), Raymo(2007)의 연구에서도 부모와 동거하는 일본의 미혼성인들이 경제적, 주거적, 생활적으로 부모로부터 일상적인 지원을 받는 이점 때문에 결혼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30대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고선강 외(2013)의 연구는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남성에서만 유의하게 결혼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여성이 독립해서 사는 경우 가족동거 미혼여성들에 비해서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있음을 밝혔다(김정석, 2006). 이는 남녀간에 단독가구를 형성하는 원인이 다르기 때문으로 보고 있는데 미혼남성들의 경우 교육이나 직장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가족을 떠나 단독가구를 형성한다면, 미혼여성들의 경우는 이보다 복잡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미혼여성의 단독가구형성 자체가 현재의 원가족으로부터 독립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생활에서도 미혼상태를 유지한 채 자신만의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생활을 추구하기 위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단독가구를 형성한 미혼여성들은 결혼보다는 미혼1인 가구로서 생활하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것이 결혼의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Copp, Giordano, Longmore & Manning, 2013; 김정석, 2006; Goldscheider &



Goldscheider, 1993).

김혜영(2007)은 1인가구로 생활한 기간이 짧을수록 그리고 미혼집단이 사별, 이혼 1인가구들 보다 결혼 필요성에 대한 동의가 높다고 하였다. 같은 연구에서 여성 1인가구가 남성 1인가구보다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설명할 주요 변인으로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확인되었다. 이것으로 보아 1인가구 미혼여성들도 결혼과 가족에 대한 전통적 가치를 어느 정도 내재화 하고 있으며 다른 여건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형성, 유지된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 이를 통해 30, 40대 미혼여성들의 거주유형에 따라 결혼의향이 유지되거나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 III. 연구문제

####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30, 40대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거주유형에 따른 생활실태와 가치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30, 40대 미혼여성들의 거주유형을 결정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가치관 변인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이상을 다음의 연구문제로 도출하였다.

[연구문제 1] 30, 40대 미혼여성의 거주유형에 따라 생활실태와 가치관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30, 40대 미혼여성의 거주유형을 결정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가치관 변인은 무엇인가?

## IV.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

본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수행한 여성가족패널조사(KLoWF)의 2010년 3차년도 자료 중 가구용, 여성개인용, 일자리용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여성가족패널조사는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여성 9,997명을 원표본으로 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이로 인한 일-가족생활의 조화를 파악하고 여성의 생활세계를 경험적으로 규명하고자 2007년 제1차 본조사를 시작하였다. 기존의 패널조사들의 약점들을 보완하여 여성과 가족의 실태를 파악하기에 여성 표본이 풍부하게 있는 여성가족 패널은 여성·가족정책 관련연구를 위해서는 유용하다(이택면, 주재선, 송치선, 강석훈, 2011).

본 연구에서는 30, 40대의 미혼여성들이 거주유형이 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전국에 거주하는 현재 미혼상태의 30세 이상 50세 미만 여성 총 240명을 최종표본으로 확정하였다. 이들 중 미혼여성 1인가구는 49명, 가족과 동거하는 미혼여성은 191명이다.

## 2. 변수의 정의와 측정

### 1) 종속변수

#### (1) 거주유형

30, 40대 미혼여성들 중 전체 가구원 수가 '1'이고 응답자와 가구주와의 관계에서 본인이 가구주라고 밝힌 경우를 '1인가구'로, "아버님 혹은 어머님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에 '나와 함께 살고 계신다'라고 한 응답자와 동거가구원과 가구주와의 관계에서 '인척관계가 아닌 동거인'을 제외한 거주유형을 '가족동거유형'으로 설정하였다. 즉, '형제/자매', '가구주 배우자의 형제/ 자매' 등 가족과 살고 있는 미혼여성을 가족동거유형으로 설정하여, 1인 가구는 '1'로 가족동거는 '0'으로 코딩하였다.

### 2) 독립변수

#### (1) 사회인구학적 변인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생활실태변인을 제외한 연령, 교육수준으로 분류하였다. 30, 40대의 미혼여성들의 거주유형에 따라 연령, 교육수준이 다르게 나타나는 지 측정해 보고자 한다.

##### ① 연령

연령은 2010년 조사 당시 30, 40대 미혼여성들의 연령을 만 나이가 아닌 한국 나이로 측정하였다. 미혼여성의 경우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연령과 결혼에 대한 태도 및 의향 관계가 선형관계가 아니라 일정 연령을 중심으로 상승하거나 감소를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집단화 하였다. 30~34세를 '30대 초반', 35~39세를 '30대 후반', 40~44세를 '40대 초반', 45~49세를 '40대 후반'의 네 집단으로 구분하여 더미변수화 하였다.

## ② 교육수준

교육수준은 '무학'에서부터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9가지의 선택지가 있었다. 이 중 30, 40대 미혼여성의 비중이 가장 많았던 '고등학교 졸업 이하',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졸업 이상'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회귀분석 시 '고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을 기준집단으로 설정하여 통제변수로 포함시켜 측정하였다.

## (2) 가족관련 주거변인

### ① 부모님 생존여부

응답자 부모님과의 관계를 묻는 문항 중 "아버님 혹은 어머니님 두분 모두 살아계십니까?"에 '두 분 모두 계신다'를 1로, '아버님만 계신다', '어머니만 계신다'와 '두 분 모두 돌아가셨다'를 0으로 설정하였다.

### ② 부모님께 생활비 드리는지 여부

응답자 부모님과의 관계를 묻는 문항 중 "부모님께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드리고 있습니까?"에 '그렇다'는 1로 '아니다'는 0으로 설정하였다.

### ③ 형제 수

“현재 형제자매는 몇 명이십니까?”에 대한 문항에 남녀를 포함하여 형제 수를 직접 적도록 하였다. 본인을 포함하여 ‘1명’ 부터 ‘8명’까지 연속변수로 측정하였다.

### ④ 형제와의 대화 빈도

응답자의 형제자매관계에 대한 문항 중 “형제자매와 서로간에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터놓고 대화하는 편입니까?”에 대해 측정도구는 4점 Likert척도로 ‘자주 대화한다’(1점), ‘가끔 대화한다’(2점), ‘거의 대화하지 않는다’(3점), ‘전혀 대화하지 않는다’(4점)으로 구성되었으나 ‘자주 대화한다’를 4점으로 ‘전혀 대화하지 않는다’를 1점으로 역코딩하여 사용하였다.

### ⑤ 거주지역의 대도시 여부

거주지역은 조사표의 ‘시도/시군구 코드’를 참조하여 1번(서울특별시)부터 7번(울산 광역시)까지 광역시 이상의 도시와 나머지 지역을 구분하였다. 대도시는 1로, 나머지 지역은 8번(경기도)부터 16번(제주특별자치도)까지를 0으로 더미변수화 하여 처리하였다.

### ⑥ 주거점유 형태

가구용 설문 중 ‘귀 닥이 살고 있는 주택은 자가입니까? 혹은 전세 또는 월세입니까?’에 ‘자가’, ‘전세’, ‘월세’ ‘기타 및 무상’의 네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3) 취업 및 소득변인

#### ① 현재 하는 일

미혼여성의 현재 하는 일은 개인응답 설문 중 '현재 어떤 상태이십니까?'에 응답한 내용을 기입하였다. '취업 준비 중', '일을 하고 있다', '집안 일을 하고 있다', '아무 일도 안하고 있다' 가 있다.

#### ② 일자리 구분

미혼여성의 지금 가지고 있는 일자리가 '정규직' '비정규직' '미취업' '비임금/특수임금근로자' 네 집단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 ③ 일 만족도

취업자의 경우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9개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 문항에 대해 측정도구는 5점 Likert척도로 '매우 만족'(1점), '약간 만족'(2점), '보통'(3점)', '약간 불만족'(4점), '매우 불만족'(5점)으로 구성되었으나 '매우 만족'을 5점으로 '매우 불만족'을 1점으로 역코딩하여 사용하였다.

#### ④ 월 평균 소득

월 평균소득은 가족동거 미혼여성의 경우 가구전체소득과 개인의 소득이 중복되거나 누락될 소지가 있어 2010년 조사 당시 응답자의 직업을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특수형태고용근로자로 분류한 근로 소득을 반영한 '응답자의 월 평균 소득'을 측정하였다. 이를 '소득 없음' 부터 100만원 단위로 구분하여 '400만원 이상'까지 모두 여섯 단계로

연속변수화 하였다.

#### (4) 생활시간 및 여가변인

##### ① 가사시간(평일, 주말)

'집안일을 하루 평균 몇 시간쯤 하십니까?'에 평일, 주말 각각 응답한 시간을 기준으로 분단위로 바꾸어 측정하였다.

##### ② 여가시간(평일, 주말)

하루 24시간의 생활시간에서 노동시간과 생리적 의미의 기본 필요시간(수면, 식사시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자유시간에 하는 자유활동으로서 활동 자체가 목적인 활동을 여가활동으로 지칭하였다. '여가활동을 하루 평균 몇 시간쯤 하십니까?'에 평일과 주말에 보내는 여가시간을 분단위로 바꾸어 측정하였다.

##### ③ 여가 방법

평일 저녁시간과 주말에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 하는 활동을 응답하였다. '가사일'을 제외한 나머지 활동으로 '휴식', 'TV시청/ 영화보기', '친구/ 동료와의 만남', '종교생활', '취미활동', '문화생활' 등이 있다.

#### (5) 가치관 및 결혼의향

##### ① 성역할 태도

성역할 태도에 관한 문항은 '여성가족패널 3차 개인설문지'의 가족 내 역할에 관한 문항 중 "남자는 직장을 가지고 여자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에 동의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 문항에 대해



측정도구는 4점 Likert척도로 '매우 그렇다'(1점), '조금 그렇다'(2점), '별로 그렇지 않다'(3점), '전혀 그렇지 않다'(4점)으로 구성되었으나 '매우 그렇다'를 4점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역코딩하여 사용하였다.

## ② 성취지향성

성취지향성은 "결혼보다는 나 자신의 성취가 더 중요하다"에 동의하는 정도이며, 이 문항에 대해 측정도구는 4점 Likert척도로 '매우 그렇다'(1점), '조금 그렇다'(2점), '별로 그렇지 않다'(3점), '전혀 그렇지 않다'(4점)으로 구성되었으나 '매우 그렇다'를 4점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역코딩하여 사용하였다.

## ③ 결혼필요성에 대한 동의

여성가족패널의 여성개인용 설문문항 중에서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에 동의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 문항에 대해 측정도구는 4점 Likert척도로 '매우 그렇다'(1점), '조금 그렇다'(2점), '별로 그렇지 않다'(3점), '전혀 그렇지 않다'(4점)으로 구성되었으나 '매우 그렇다'를 4점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역코딩하여 사용하였다.

## ④ 결혼의향

이 연구를 위해 결혼의향 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있다'를 결혼의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 1로, '없다'와 '생각해 본적이 없다'를 결혼의향이 없는 것으로 보고 0으로 분류하였다.

### 3. 분석방법

연구대상의 생활실태와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치를 살펴보기 위해 ‘횡단면응답개인가중치’를 부과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 특성들이 거주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chi^2$  과 t검정을 실시하였다. 교차분석을 통해 유의미한 주요변수들을 추출하여 이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였다. 주요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거주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을 알아보기 위해 이분형 로짓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로짓회귀분석시 ‘횡단면응답개인가중치’를 부과하여 표본의 차이를 조정하여 응답률을 추정하였다. 3차년도 횡단면개인가중치는 2010년 기준 인구추계자료를 활용하여 사후조정을 한 값이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이와 같은 자료의 분석은 Stata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 V. 연구결과 및 해석

이 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연구문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해석하기로 한다.

### 1. 연구대상자의 거주유형에 따른 생활실태 및 가치관 차이

#### 1) 사회인구학적 변인

본 연구의 분석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다음에 제시한 <표 V-1>과 같다. 분석대상자는 총 240명이며, 모두 미혼이고, 1인가구 거주자는 49명,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응답자는 191명이다.

1인가구 미혼여성의 평균 연령은 38.94세(표준편차 5.68), 가족동거 미혼여성의 평균 연령은 35.17세(표준편차 4.90)로 1인가구 거주여성이 3.77세 높게 나타났다. 연령을 30대 초반, 30대 후반, 40대 초반, 40대 후반 네 집단 별로 보면 1인가구 미혼여성의 경우 30대 후반이 16명(32.6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가족동거 미혼여성은 30대 초반의 연령집단이 101명(52.88%), 두 번째로는 30대 후반이 65명(28.27%)를 차지했다. 연령집단 간 거주유형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chi^2=22.34$ ,  $p<.001$ ).

이는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보고서(김승권 외, 2012)에서 여성의 경우 35세를 기준으로 하여 대체로 연령이 낮을수록 부모와의 동거율이 높게 나타난 것과 일치한다.

교육수준의 경우 1인가구 미혼여성은 고등학교졸업 이하 학력과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이 같은 비중으로서 각 21명(42.86%)이며, 가족동거 미혼여성의 경우는 4년제 대학교 이상 졸업생이 93명(48.69%)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고, 두 번째로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59명(30.89%)이었다. 교육수준은 거주유형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표 V-1> 연구대상자의 거주유형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변인

	1인가구(N=49)	가족동거(N=191)	합계(N=240)	$\chi^2/t$ <sup>1)</sup>	
	평균(표준편차)	38.94 (5.68)	35.17 (4.90)	35.94 (5.28)	37.93 **
연령	30대 초반	10 (20.41)	101 (52.88)	111 (46.25)	22.34 ***
	30대 후반	16 (32.65)	65 (28.27)	70 (29.17)	
	40대 초반	12 (24.49)	22 (11.52)	34 (14.17)	
	40대 후반	11 (22.45)	14 (7.33)	25 (10.42)	
교육수준	고등학교이하	21 (42.86)	59 (30.89)	80 (33.33)	2.72
	2/3년제 대학	7 (14.29)	39 (20.42)	46 (19.17)	
	4년제 대학이상	21 (42.86)	93 (48.69)	114 (47.50)	

\*p<.05, \*\*p<.01, \*\*\*p<.001 <sup>1)</sup>가중치 적용한 차이임

## 2) 가족관련 및 주거변인

응답자들의 거주유형에 따른 가족관련 주거실태는 다음의 <표 V-2>와 같다. 부모님이 모두 살아계시는 경우는 1인가구 미혼여성, 가족동거 미혼여성의 경우 둘 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46.94%, 64.40%이다. 부모님이 '두 분다 안 계신다'는 경우는 1인가구 미혼여성의 경우 12.24%, 가족동거 미혼여성의 경우 1.57%이다. 부모님이 모두 다 살아 계시는 정도는 거주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chi^2=14.31$ ,  $p<.001$ ).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는 경우는 1인가구 미혼여성, 가족동거 미혼여성 둘 다 7명(14.19%), 9명(4.71%)으로 적은 비율이었지만 두 집단간의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chi^2=5.74$ ,  $p<.05$ ). 가족동거

미혼여성들이 부모님과 함께 사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부모님께 경제적 도움을 드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오히려 1인가구 미혼여성들이 부모님께 경제적 도움을 드리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본인을 포함한 형제 수는 1인가구 미혼여성은 4명 이상이 있는 경우가 48.97%로 가장 많았고, 가족동거 미혼여성은 3명의 형제가 있는 경우가 40.31%로 가장 많았다.

형제자매간에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터놓고 대화하는 편인가에 대한 전체 평균은 3.21점 (표준편차 .66)이다. 1인가구 미혼여성은 평균 3.08점(표준편차 .85)으로 가끔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동거 미혼여성은 3.24점(표준편차 .60) 으로 두 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두 집단의 평균이 3.21점으로 보아 30, 40대 1인가구 미혼여성과 가족동거 미혼여성의 형제자매간의 대화를 자주하는 편으로 유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점유형태의 경우 1인가구 미혼여성과 가족동거 미혼여성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어렵지만 주거안정성차원에서 접근하여 해석해 보고자 한다. '자가'보다 점유형태가 불안정한 '전세'와 '월세'의 비중이 1인가구의 경우 각각 36.73%, 28.5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에 반해 가족동거 미혼여성은 '자가'비중이 78.53%으로 안정적인 주거점유를 보이고 있었다( $\chi^2=52.45$ ,  $p<.001$ ).

거주지역의 경우 광역시 이상의 도시와 시·도 지역에 거주하는 1인가구 미혼여성은 각각 53.06%, 46.94%으로 나타났다. 가족동거 미혼여성은 61.78%가 광역시 이상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표 V-2> 연구대상자의 거주유형에 따른 가족관련 및 주거변인

		1인가구(N=49)	가족동거(N=191)	합계(N=240)	$\chi^2/t$ <sup>1)</sup>
부모님 생존여부	두분다계심	23 (46.94)	123 (64.40)	146 (60.83)	14.31 ***
	한분 계심	20 (40.81)	65 (34.03)	85 (35.42)	
	안계심	6 (12.24)	3 (1.57)	9 (3.75)	
부모님 생 활비	드림	7 (14.19)	9 (4.71)	16 (6.67)	5.74 *
	안 드림	42 (85.71)	182 (95.29)	224 (93.33)	
형제수 (본인포함)	1명	1 (2.04)	7 (3.66)	8 (3.33)	12.51
	2명	10 (20.41)	48 (25.13)	58 (24.17)	
	3명	14 (28.57)	77 (40.31)	91 (37.92)	
	4명 이상	24 (48.97)	59 (30.88)	110 (34.59)	
형제대화 빈도	평균(표준편차)	3.08 (.85)	3.24 (.60)	3.21 (.66)	1.47
주거점유 형태	자가	13 (26.53)	150 (78.53)	163 (67.92)	52.45 ***
	전세	18 (36.73)	14 (7.33)	32 (13.33)	
	월세	14 (28.57)	18 (9.42)	32 (13.33)	
	기타	4 (8.16)	12 (4.71)	13 (5.42)	
거주지역	서울 및 광역시	26 (53.06)	118 (61.78)	144 (60.00)	1.23
	기타 시.도	23 (46.94)	73 (38.22)	96 (40.00)	

\*p<.05, \*\*p<.01, \*\*\*p<.001 <sup>1)</sup>가중치 적용한 차이임

### 3) 취업 및 소득변인

연구대상자의 거주유형에 따른 취업 및 소득실태는 다음<표 V-3>과 같다. 먼저 30,40대 미혼여성의 현재 하는 일을 살펴보면 1인가구 미혼여성은 현재 일하는 중인 경우가 44명(89.80%)으로 가장 많고, 일을 하지 않는 경우는 5명(10.20%)이다. 가족동거 미혼여성은 현재 하는 일이 1인가구 미혼여성들 보다 다양하게 나타났다. 가족동거 미혼여성들도 일하는 비율이 136명(71.96%)으로 가장 많고, 일을 하지 않는 경우는 22명(11.64%), 취업준비 중 16명(8.47%), 집안일을 한다 15명(7.94%)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하는 일은 거주 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chi^2=9.74$ ,  $p<.05$ ).

일자리 구분은 '정규직', '비정규직', '비임금/ 특수고용노동', '미취업'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인가구 미혼여성은 정규직이 22명(44.90%)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비정규직 11명(22.45%)순으로 나타났다. 가족동거 미혼여성은 정규직이 82명(43.62%), 미취업이 46명(24.47%)순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종류는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가 30, 40대 미혼여성 전체집단 중에서 78명(42.86%)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냈다. 그 다음으로는 사무직이 57명(31.32%), 서비스직이 22명(12.0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보고서(김승권 외, 2012)에서 미혼여성의 사무직 종사자 비율이 46.2%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차이를 보였다.

일 만족도는 '임금수준', '고용의 안정성', '하고 있는 일의 내용', '근로환경', '근로시간', '개인의 발전가능성', '직장 내 인간관계', '복리후생', '전반적 만족도'의 9개 문항의 평균값으로 알아보았다. 전체 평균은 3.37점(표준편차 .60)이고 1인가구 미혼여성의 일 만족도는 평균 3.40점(표준편차 .71)으로 전체평균보다 약간 높다. 가족동거 미혼여성의 일 만족도는 평균 3.35점(표준편차 .57)으로 전체 평균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 거주유형에 따른 일 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소득의 경우 소득 없는 미혼여성은 1인가구의 경우 7명(14.29%), 가족동거 미혼여성은 53명(27.75%)으로 가족동거 미혼여성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소득 구간별로 보면 1인 가구 미혼여성은 100만원대가 21명(42.86%), 200만원대가 11명(22.45%)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가족동거 미혼여성 또한 100만원대가 78명(40.84%), 200만원대가 43명(22.51%)으로 나타났다.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보고서(김승권 외, 2012)는 미혼자 전체의 월평균 근로소득이 195만원, 20~44세 미혼여성 전체의 월 평균 근로소득은 177.7만원으로 밝혔다. 본 연구 대상자인 30, 40대 미혼여성들도 이와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V-3> 연구대상자의 거주유형에 따른 취업 및 소득변인

		1인가구 (N=49)	가족동거 (N=191)	합계 (N=240)	$\chi^2/t^{2)}$
현재하는일	취업준비중(직업훈련)	0 0	16 (8.47)	16 (6.72)	9.74 *
	일한다	44 (89.80)	136 (71.96)	180 (75.63)	
	집안일	0 0	15 (7.94)	15 (6.30)	
	일안한다	5 (10.20)	22 (11.64)	27 (11.34)	
일자리구분 <sup>1)</sup>	정규직	22 (44.90)	82 (43.62)	104 (43.88)	5.25
	비정규직	11 (22.45)	39 (20.74)	50 (21.10)	
	비임금근로	10 (20.41)	21 (11.17)	31 (13.08)	
	미취업	6 (12.24)	46 (24.47)	52 (21.94)	
일자리종류 <sup>1)</sup>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9 (45.24)	59 (42.14)	78 (42.86)	11.15
	사무직	7 (16.67)	50 (35.71)	57 (31.32)	
	서비스직	6 (14.29)	16 (11.43)	22 (12.09)	
	판매직	5 (11.90)	8 (5.71)	13 (7.14)	
	단순노무직	3 (7.14)	1 (.71)	8 (4.40)	
일만족도 <sup>1)</sup>	평균(표준편차)	3.40 (.71)	3.35 (.57)	3.37 (.60)	.46
월평균소득	소득없음	7 (14.29)	53 (27.75)	60 (25.00)	9.38
	100만원 미만	6 (12.24)	8 (4.19)	14 (5.83)	
	100~199만원	21 (42.86)	78 (40.84)	99 (41.25)	
	200~299만원	11 (22.45)	43 (22.51)	54 (22.50)	
	300~399만원	2 (4.08)	7 (3.66)	9 (3.75)	
	400~499만원	2 (4.08)	2 (1.05)	4 (1.67)	

\*  $p < .05$  <sup>1)</sup>취업자만을 대상 <sup>2)</sup>가중치 적용한 차이임

#### 4) 생활시간 및 여가활동변인

연구대상자의 거주유형에 따른 생활시간 및 여가활동은 다음 <표 V-4>와 같다. 1인가구 미혼여성의 평일 평균 가사시간은 82.65분이고 가족동거 미혼여성의 평일 평균 가사시간은 76.98분으로 두 집단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두 집단의 주말 평균 가사시간은



116.43분이며 1인가구 미혼여성(119분)과 가족동거 미혼여성(115분)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즉, 1인가구 미혼여성이 가사일을 조금 더 하지만, 가족동거 미혼여성이 가사일을 하는 시간도 비슷하다.

1인가구 미혼여성의 평일 평균 여가시간은 160분이고 가족동거 미혼여성들의 평일 평균 여가시간은 138.88분이고, 주말 평균 여가시간은 두 집단 각각 286.73분, 251.87분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 미혼여성과 가족동거 미혼여성들의 평일과 주말의 여가시간 평균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1인가구 미혼여성이 평일 저녁에 주로 하는 일은 TV시청/영화보기 26.53%, 기타 18.37%, 휴식 16.33%순이었고 가족동거 미혼여성은 TV시청/영화보기 30.69%, 기타 20.63%, 휴식 17.46%순으로 나타나 평일 저녁시간에 하는 일은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1인가구 미혼여성이 주말에 하는 일은 TV시청/영화보기 34.69%, 친구/동료만남 22.45%, 휴식 16.33%이었으며 가족동거 미혼여성은 TV시청/영화보기 25.93%, 친구/동료만남 22.75%, 기타 16.40%, 휴식 14.29%로 나타났다.

위의 평일과 주말의 여가생활의 차이는 김혜영 외(2007)의 1인가구 생활실태 조사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도 미혼여성들은 평일 저녁의 경우 친구들과의 만남보다 집에서 혼자 보내는 때가 많으며 휴식이나 TV시청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가사일을 하였다. 주말의 여가시간을 살펴보면 평일 여가시간 보다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TV시청과 휴식'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친구교제, 종교활동, 문화생활 등으로 주말시간을 보내는 비율이 평일보다 높아졌다.

<표 V-4> 연구대상자의 거주유형에 따른 생활시간 및 여가활동변인

		1인가구 (N=49)	가족동거 (N=191)	합계 (N=240)	$\chi^2/t$ <sup>1)</sup>
가사시간 평균(표준편차)	평일(분)	82.65 (83.64)	76.98 (95.44)	78.17 (92.96)	.38
	주말(분)	119.39 (91.96)	115.66 (129.66)	116.43 (122.68)	.19
여가시간 평균(표준편차)	평일(분)	160 (135.65)	138.88 (96.70)	143.24 (105.92)	.24
	주말(분)	286.73 (170.80)	251.87 (168.54)	259.05 (169.24)	1.29
평일저녁에 하는일	TV시청/ 영화보기	13 (26.53)	58 (30.69)	71 (29.83)	10.92
	휴식	8 (16.33)	33 (17.46)	41 (17.23)	
	가사일	2 (4.08)	19 (10.05)	21 (8.82)	
	친구/ 동료만남	8 (16.33)	15 (7.94)	23 (9.66)	
	업무	4 (8.16)	14 (7.41)	18 (7.56)	
	컴퓨터/ 게임	5 (10.20)	11 (5.82)	16 (6.27)	
	기타	9 (18.37)	39 (20.63)	46 (20.63)	
주말에 하는 일	TV시청/ 영화보기	17 (34.69)	49 (25.93)	66 (27.73)	7.57
	친구/ 동료만남	11 (22.45)	43 (22.75)	54 (22.69)	
	휴식	8 (16.33)	27 (14.29)	35 (14.71)	
	가사일	3 (6.12)	20 (10.58)	23 (9.66)	
	종교생활	4 (8.16)	10 (5.29)	14 (5.88)	
	문화생활	3 (6.12)	9 (4.76)	12 (5.04)	
	기타	3 (6.12)	31 (16.40)	34 (14.29)	

\*p<.05, \*\*p<.01 <sup>1)</sup>가중치 적용한 차이임

## 5) 가치관 및 결혼의향

연구대상자의 거주유형에 따른 가치관과 결혼의향 차이는 다음<표 V-5>와 같다. 우선 30, 40대 미혼여성의 결혼계획이 없는 이유는 거주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다( $\chi^2=31.06$ ,  $p<.001$ ). 1인가구 미혼여성의 경우 '독신생활이 좋아서'가 40.63%로 가장 많았고, '적합한 상대가 없어서'가 25.00%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직장 생활에 지장을 줄 것 같아서'가 9.38%, '나의 건강이나 장애로 인해'가 9.38%가 있다. 가족동거 미혼여성의 경우 '적합한 상대가 없어서'가 60.9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적합한 상대가 없어서' 14.18% '결혼을 하기에 적절한 나이가 아니라서' 6.38%, '나의 건강이나 장애로 인해' 4.96%, '직장 생활에 지장을 줄 것 같아서' 4.26%, '장애 또는 만성질환을 가진 가족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4.26%, '경제적 여건이 안되어서' 3.55%

순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 미혼여성의 경우 독신생활을 선호하거나 적합한 배우자를 만나지 못한 것이 결혼계획이 없는 이유로 명확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가족동거 미혼여성은 위의 두 가지 이유 외에도 경제적 어려움, 가족 돌봄을 위해서 등 다양한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고 있었다.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보고서(김승권 외, 2012)는 30대 이상 응답자가 결혼하지 않은 이유로는 미혼남녀 모두 '본인의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특히 미혼여성의 경우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라는 응답률이 높았지만 취업한 미혼여성들 중의 상당수는 '소득이 낮아서(13.1%)', '결혼비용이 마련되지 못해서(12.4%)'를 대답한 것으로 보아 미혼여성들도 경제적 문제로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남자는 직장을 가지고 여자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의 질문을 통한 고정적 성역할태도에 대한 생각은 다음<표 V-5>와 같다. 1인가구 미혼 여성은 평균 2.32점(표준편차 .85), 가족동거 미혼여성 평균 2.37점(표준편차 .71)으로 전체 평균 2.36점(표준편차 .74)과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0, 40대 미혼여성들은 고정적 성역할태도에 대해 '별로 그렇지 않다'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결혼보다는 나 자신의 성취가 중요하다'의 성취지향성 정도는 1인가구 미혼여성은 평균 2.51점(표준편차 .74)으로 나타났다. 가족동거 미혼여성은 평균 2.74점(표준편차 .70)으로 전체 평균 2.69점(표준편차 .71)보다 높게 나왔으며 두 집단간의 차이는 유의하였다 ( $\chi^2=2.05$ ,  $p<.05$ ).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를 통해 30, 40대 미혼여성의 결혼필요성을 알아보았다. 전체 평균은 2.24점 (표준편차 .79)이고 1인가구 미혼여성은 평균2.00점 (표준편차 .87), 가족동거 미혼여성은 평균2.30점(표준편차 .76)으로 두 집단간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2.39$ ,  $p<.01$ ).

결혼의향에 대해서는 1인가구 미혼여성이 있다는 응답이 32.65%, 없다는 응답이 67.35%이다. 가족동거 미혼여성들은 79.41%는 결혼의향이 있으며 34.39%는 결혼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유형별 결혼의향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17.45$ ,  $p<.001$ ). 이처럼 거주유형에 따른 결혼의향의 차이는 미혼여성의 단독가구의 형성이 결혼보다는 미혼1인가구로서 생활하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라는 김정석(200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결혼의향은 구체적인 결혼계획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기에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30, 40대 미혼여성들도 일부 결혼진입으로의 욕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Ⅳ-5> 연구대상자의 거주유형에 따른 가치관 및 결혼의향

		1인가구(N=49)	가족동거(N=191)	합계(N=240)	$\chi^2/t$ <sup>1)</sup>
결혼계획없는이유	독신생활선호	13 (40.63)	20 (14.18)	33 (19.08)	31.06 ***
	직장생활집중	3 (9.38)	6 (4.26)	9 (5.20)	
	건강문제	3 (9.38)	7 (4.96)	10 (5.78)	
	돌봐야할 가족	0 0	6 (4.26)	6 (3.47)	
	경제적문제	0 0	5 (3.55)	5 (2.89)	
	적합한상대없음	8 (25.00)	86 (60.99)	94 (54.34)	
	적령기아님	1 (3.13)	9 (6.38)	10 (5.78)	
성역할태도	평균(표준편차)	2.32 (.85)	2.37 (.71)	2.36 (.74)	.40
성취지향성	평균(표준편차)	2.51 (.74)	2.74 (.70)	2.69 (.71)	2.05 *
결혼필요성 동의	평균(표준편차)	2.00 (.87)	2.30 (.76)	2.24 (.79)	2.39 **
결혼의향	없음	33 (67.35)	65 (34.39)	98 (41.18)	17.45 ***
	있음	16 (32.65)	124 (79.41)	140 (58.82)	

\*p<.05, \*\*p<.01, \*\*\*p<.001 <sup>1)</sup>가중치 적용한 차이임

## 2. 주요변수들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주요 독립변수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표IV-6>과 같다.

<표 V-6> 주요변수들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 거주유형 <sup>1)</sup>	1										
2 연령	.24***	1									
3 교육수준	-.02	-.19**	1								
4 부모님생존	-.14*	-.40***	.35***	1							
5 부모님생활비	.13**	.14*	.05	-.07	1						
6 현재하는일	.19*	-.06	.25***	.15*	.13	1					
7 월평균소득	.04	-.11	.35***	.17**	.16*	.69***	1				
8 성역할태도	-.02	.16*	-.17**	-.13*	.00	-.19***	-.20**	1			
9 성취지향성	-.17*	.01	.25***	.00	.09	.19**	.23***	-.20**	1		
10 결혼필요성	-.09	-.27**	.09	.18**	-.10	.07	.20**	-.01	-.06	1	
11 결혼의향	-.20**	.44***	.25***	.37***	-.04	.26***	.36***	-.11	.07	.49***	1

\*p<.05, \*\*p<.01, \*\*\*p<.001 <sup>1)</sup>거주유형(1= 1인가구)

거주유형과 연령은 정적인 상관( $r=.24$ )을 보였으며, 부모님생존 ( $r=-.14$ ), 성역할태도( $r=-.02$ ), 성취지향성( $r=-.17$ ), 결혼의향( $r=-.20$ )과는 부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 생존여부는 현재 하는 일( $r=.15$ ), 월평균소득( $r=.17$ ), 결혼필요성( $r=.18$ ), 결혼의향 ( $r=.37$ )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성역할태도( $r=-.17$ )와는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월평균소득과 가치관의 상관관계를 보면 성역할태도에만 부적인 상관( $r=-.20$ )을 보였고 다른 가치관들에는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가치관들 서로간에는 성역할태도와 성취지향성이 부적인 상관( $r=-.20$ )을 보였고, 결혼의 필요성과 결혼의향( $r=.49$ )은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30, 40대 미혼여성의 거주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앞서 살펴본 30, 40대 미혼여성의 거주유형에 따른 생활실태를 바탕으로 하여 1인가구 거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회인구학적 변수, 부모님 관계, 취업, 소득, 가치관 변수들을 투입하여 이분형로짓회귀분석을 하였다. <표 V-7>은 30, 40대 미혼여성의 거주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 2]의 분석결과이다. 이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Wald  $\chi^2 = 38.61$ ,  $p < .001$ ), 상수와 부모님 생존여부, 현재 하는 일, 성취지향성, 결혼의향 변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해석하면 30, 40대 미혼여성의 부모님 모두 생존해 계신 경우가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한 분만 생존해 계신 미혼여성보다 가족과 동거할 승산비가 .13이므로 즉, 부모님이 모두 살아계신 30, 40대 미혼여성이 그렇지 않은 미혼여성에 비해 가족동거 가능성이 7.6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님 모두 살아계신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정서적 지원이 풍부하기 때문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Retherford 외, 2001).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는 30, 40대 미혼여성이 1인가구 거주를 할 승산비가 .04이므로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는 30, 40대 미혼여성이 일을 하고 있는 30, 40대 미혼여성에 비해 1인가구로 거주할 9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립된 거주공간에서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독립생활하는 이들은 경제적으로 완전한 독립을 하고 있다는 김혜영 외(2007)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1인가구의 약 80%가 '본인이 일한 소득'으로 가구 소득을 충당하고 있으며, 이는 무엇보다 1인가구가 혼자

생활하기 위한 요건으로 경제적 능력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지 않은 30, 40대 미혼여성들은 경제력이 있는 부모 또는 다른 가족원과 동거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하지만 월평균소득변수는 1인가구거주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가 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소득의 높고 낮음보다는 취업유무가 1인가구 거주유형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30, 40대 미혼여성의 성취지향적 가치관은 1인가구 거주여부에 대한 승산비가 .38로 결혼보다 개인의 성취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질수록 1인가구거주 할 승산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인가구로 독립한 미혼여성의 성취지향성이 더 높을 것이라는 통념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야마다 마사히로(2004)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다니는 전문학교(소믈리에, 어학 등)가 많아져 이것이 현재의 일에 만족하지 못하는 싱글들의 희망을 받아들이는 곳이 되었다고 했다. 또한 가족의 지원을 받으면서 사법시험, 회계사시험 등 자격시험을 위해서 몇 년이고 더부살이 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성취지향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30,40대 미혼여성이 1인가구를 구성하여 살기보다는 가족과 함께 살 가능성이 높은 이유도 이들이 아직 목표하는 것이 있으며 미혼여성의 가족동거는 야마다 마사히로(2004)가 말하는 '자기 찾기'가 가능한 조건으로 볼 수 있다.

30, 40대 미혼여성의 결혼의향은 1인가구 거주여부에 대한 승산비가 .28로 결혼의향을 갖고 있는 미혼여성이 1인가구로 거주 할 승산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을 통제했을 때 결혼의향이 유의미한 것으로 보아 다른 어떤 변인 보다(이수진, 2005) 결혼의향 여부는 30, 40대 미혼여성의 거주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표Ⅳ-7> 30, 40대 미혼여성의 거주유형<sup>1)</sup>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Model	
		B (S.E.)	Odds Ratio
	상수항	3.70 (1.85)*	
연령 (기준=30대 초반)	30대 후반	.96 (.59)	2.61
	40대 초반	.95 (.66)	2.57
	40대 후반	1.42 (.77)	4.13
교육수준 (기준= 고등학교)	2/3년제 대학	.31 (.74)	1.36
	4년제 대학이상	.31 (.50)	1.37
부모님 생존	(1=두 분)	-2.06 (1.01)*	.13
부모님 생활비	(1= 드림)	.75 (.66)	2.12
현재하는일 (기준=일함)	일안함	-3.17 (.97)**	.04
	월평균소득	-.22 (.30)	.80
	성역할태도	-.21 (.28)	.81
	성취지향성	-.98 (.30)**	.38
	결혼필요성동의	.13 (.30)	1.13
	결혼의향 (1=있음)	-1.29 (.54)*	.28
	df	13	
	Wald $\chi^2$	38.61***	
	Pseudo $R^2$	.22	

\*p<.05, \*\*p<.01, \*\*\*p<.001 <sup>1)</sup> 거주유형 (1=1인가구)

## VI. 결론 및 논의

지금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면에서 사회적 노력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 혼외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한국의 사회인식을 고려할 때 동거의 확산에 근거하여 높은 여성 고용율과 출산율을 동시에 유지하고 있는 서구사회의 유형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혼인을 통한 출산이 보편적인 우리사회에서 기혼여성에 대한 출산장려는 당연한 것이었다. 하지만 미혼율의 상승세 속에서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저출산 정책은 한계를 맞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기혼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것 이상으로 가족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미혼남녀가 혼인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선행연구들은 결혼지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 보다 사회·경제·문화적 배경이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김경원, 2004; 강은영 외, 2010; 김혜영 외, 2007; 김혜영 외, 2010; 김승권 외, 2012). 결혼에 대한 행위 결정에 있어서 다른 환경적인 이유가 개인의 욕구보다 강하게 작용한다면 정책적 개입을 통해 이를 완화시켜줄 필요성이 있다.

저출산 현상이 미혼남녀의 혼인지연으로 인한 것임을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하고 본 연구에서는 미혼남성보다 결혼에 대한 부담을 더 갖고 있는 30, 40대 미혼여성들의 생활실태를 살펴보았다. 미혼여성들이 결혼 전까지 가족과 동거하는 사회적 통념과는 달리 홀로 독립해서 생활하고 있는 미혼여성들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30, 40대 미혼여성들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거주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거주유형에 따라서 미혼여성들의 특성을 보고자 한 것은 미혼여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할 때 거주유형에 따른 생활의 차이로 인해 이들의 욕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동일한 연령의 30, 40대 미혼여성일지라도 거주유형에 따라 생활특성과 가치관이 다를 수 있음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30, 40대 미혼여성의 환경적 요소와 가치관 중에서 거주유형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

이상의 연구문제를 밝히기 위해서 여성가족패널(KLoWF) 3차 조사의 30, 40대 미혼여성 총 240명을 정했다. 즉, 1인가구로 살고 있는 30, 40대 미혼여성 49명, 부모, 형제들과 살고 있는 30, 40대 미혼여성 191명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거주유형에 따른 생활특성과 가치관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30, 40대 미혼여성의 거주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이분형로짓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30, 40대 미혼여성들의 생활실태를 연령, 교육수준, 가족관계, 주거, 취업 및 소득, 생활시간 및 여가활동, 가치관과 결혼의향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30, 40대 가족동거 미혼여성의 30대 초반 비율이 52.8%로 1인가구 미혼여성에 비해 연령이 젊은 것으로 나타나 거주유형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수준의 경우 4년제 대학이상의 비율이 두 집단이 각각 42.86%, 48.69%로서 유사한 분포로 교육수준이 높은 편임을 보였지만 거주유형에 따른 교육수준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30, 40대 미혼여성 두 집단 모두 부모님 모두 살아계신 경우의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부모님 두 분다 안 계신 경우는 1인가구 미혼여성이 가족동거 미혼여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부모님 생존여부는 거주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는지 여부도 거주유형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가족동거

미혼여성들이 가족과 함께 살면서 자기 몫의 생활비를 내는 경향보다 1인가구 미혼여성들이 떨어져 사는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는 경우가 더 높음을 보인다. 30, 40대 미혼여성들의 형제 수는 3명 이상인 경우가 72.51%로 가장 많았으며 1인가구 미혼여성과 가족동거 미혼여성 모두 형제자매와의 대화를 자주하는 편으로 나타나 형제자매와의 유대를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0, 40대 미혼여성들은 일을 하고 있는 비중이 전체의 75.63%로 두 집단 모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가족동거 미혼여성의 경우 취업준비중, 집안일을 하는 등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여성의 비율이 28.05%로 1인가구 미혼여성보다 2배 넘는 비율을 보였다. 특히 가족동거 미혼여성의 경우 집안일을 한다는 응답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이 가족과 함께 살면서 가사일을 돕는 것으로 보인다. 월평균소득의 경우 1인가구 미혼여성과 가족동거 미혼여성 두 집단 모두 100~300만원 사이의 소득이 가장 많았으나 소득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족동거 미혼여성 27.75%로 1인가구 미혼여성보다 2배 가까이 더 높게 나타났다.

30, 40대 미혼여성들이 평일과 주말 동안 가사시간에 할애하는 비중은 거주유형간의 차이가 없으므로 가족동거 미혼여성들도 집안일을 다른 가족원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들의 평일과 주말의 여가시간도 집단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여가활동의 내용 또한 유사하였다.

가족동거 미혼여성들의 결혼계획이 없는 이유로 '둘 봐야 할 가족'이 있거나 '경제적 문제'를 응답한 것이 1인가구와 다른 점으로 보여진다. 1인가구들은 주로 독신생활을 선호하거나 적합한 상대를 못 만났기 때문이었지만 가족동거 미혼여성은 '적합한 상대 없음'외에도 다른 이유들이 고르게 나타났다.

성역할태도에 있어서는 30, 40대 미혼여성이 동질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데 반해 성취지향성과 결혼필요성에 동의하는 정도가 가족동거 미혼여성이 1인가구 미혼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동거 미혼여성들의 상당수인 79.41%가 결혼의향이 있는 것과 연결해서 보면 가족동거 미혼여성이 성취지향성이 높으며 결혼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만큼 결혼의향도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1인가구 미혼여성의 67.35%가 결혼의향이 없음을 나타내 30, 40대 미혼여성의 거주유형에 따라서 결혼의향의 차이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연령과 교육수준을 통제했을 때 30, 40대 미혼여성의 거주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부모님 생존여부와 현재하는 일, 성취지향적 가치관과 결혼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30, 40대 미혼여성 중 부모님 모두 살아 계신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가족동거를 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현재 일을 하고 있는 30, 40대 미혼여성이 일을 하지 않는 미혼여성 보다 1인가구 거주유형으로 생활 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월평균소득은 1인가구 거주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소득보다는 현재하는 일 여부가 1인가구 거주에 영향을 더 미치는 변인임이 나타났다. 또한 가치관변인 중에서는 결혼보다 자신의 성취를 우선시 하는 성취지향적 가치관을 갖고 있거나 결혼의향이 있는 30, 40대 미혼여성은 가족과 함께 거주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30, 40대 미혼여성의 부모님 생존여부가 1인가구 거주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 30, 40대 미혼여성들에게도 부모님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부모동거가구의 평균 가구소득이 300만원으로 미혼여성의 평균소득인 170만원보다 높으며 부모동거 미혼여성은 부모와의

관계가 양호한 경우가 많다는 연구(양은주, 2005)로 보아 이 결과는 부모님이 모두 살아계신 경우 경제적, 정서적으로 부모로부터의 지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Retherford 외, 2001). 또한 성인자녀와 함께 사는 부모의 만족도도 높게 나왔기(이영분 외, 2011) 때문에 만혼화의 원인이 부모에 의존하려는 미혼여성 때문인지 부모세대의 가치관 때문인지는 추후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30, 40대 미혼여성들의 약 70%이상이 취업상태였으며 교육수준에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30, 40대 가족동거 미혼여성의 28%가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중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중 집안일을 돕는다는 응답이 있었다. 가족동거 미혼여성들 중에는 집에서 돌봐야 할 가족이 있거나 가사일 등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일을 그만두고 부모를 돌보는 딸이 적지 않음을 시사하는 일본의 예(야마다, 2004)를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다.

셋째, 30, 40대 미혼여성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가족동거 미혼여성이 거주하는 가구의 주 수입원이 부모나 형제라면 부모가 언제까지 건강할 수 없고, 다른 형제에게 경제적 도움을 지속적으로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모색해야 한다. 대학생과 경력단절 여성의 커리어 개발을 위해 집중되어 있는 지금의 정책들을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 40대 미혼여성들에게도 확대 적용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하겠다.

넷째, 30, 40대 미혼여성들의 결혼지연사유가 거주유형에 따라서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1인가구 미혼여성이 가족동거 미혼여성에 비해 독신생활을 선호하는 비중이 높고 결혼의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족동거 미혼여성은 적합한 배우자를 찾지 못해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결혼의향이 높음은 1인가구 미혼여성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30, 40대 1인가구 미혼여성들은 안전한 주거환경과 싱글여성 커뮤니티 지원과 같은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적 욕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1인가구 미혼여성보다 결혼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30, 40대 가족동거 미혼여성들에게는 적극적인 결혼지원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이들의 선호에 맞을 것으로 보인다. 결혼지원정책에는 결혼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이성 간 만남의 장 마련,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제공, 주택마련 지원, 결혼휴가제도, 결혼비용 융자 지원 등으로 구성되며 이 중 미혼남녀 모두 주택지원과 결혼비용 융자 지원의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다(김승권 외, 2012). 하지만 30, 40대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혼인지연보다 적합한 배우자를 만나지 못한 사유가 크고 결혼에 대한 욕구가 있지만 적극적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진미정, 2013). 가족정책은 결혼에 따른 여성의 직업생활에서의 불이익을 없애고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것과 동시에 상승하고 있는 결혼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여성들의 배우자 선택조건이 변화하는 것을 이해하고 남녀모두 결혼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과 1인가구의 생활안정을 정책적으로 마련하여 미혼여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환경에 의하지 않고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게 도울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를 밝히면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첫 째, 표본수의 부족으로 인해 연구결과를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유의해야 한다. 30, 40대 미혼여성 1인가구를 대변하기에는 수가 적기 때문에 거주유형에 따른 특성이 보다 뚜렷이 드러나지 않았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대표성이 강한 30, 40대 미혼여성을 대규모 표집하여 연구를 한다면 이들의 거주유형에 따른 생활실태와 가치관의 차이를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여성가족 패널 조사' 자료를 이차적으로 활용한 까닭에 30, 40대 미혼여성 1인가구에 대한 관련 변인들과 가치관 변인을 정교화 시키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30, 40대 미혼여성 1인가구와 관련한 변수와 가치관변수들을 보강하여 결혼 가능성에 대한 복합적인 연구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횡단적 자료의 사용으로 거주유형과 관련변수들의 인과관계를 설명하지 못 하였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종단자료를 통해서 거주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 및 관련변인들이 결혼으로의 이행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자료의 특성상 남녀비교를 실행하지 못 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30, 40대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생활실태와 가치관의 성별차이를 확인하고 거주유형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30, 40대 미혼여성의 거주유형에 따른 생활실태와 가치관의 차이를 알 수 있었으며, 30, 40대 미혼여성의 거주유형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이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적 욕구가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가족과의 동거보다 1인가구로 살 것을 선택한 30, 40대 미혼여성들의 결혼의향이 낮을 가능성을 밝히고 30, 40대 미혼여성들을 위한 정책적 노력들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참고문헌

- 강민규(2011). 국내 1 인가구 증가의 공간분포 특성에 따른 지역 정책적 함의. 국토정책브리프, 311, 국토연구원.
- 강미선(2012). 1 인가구 증가와 주거정책. 2012 가족정책포럼, 1 인가구 증가와 가족정책 조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정책전략센터.
- 강은영, 진미정, 옥선화(2010). 비혼 여성의 비혼 자발성 관련요인 탐색: 결혼 및 가족 가치관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8(2), 135-144.
- 고선강, 여성연(2013). 30 대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대한 경제자원의 효과.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7(1), 63-79.
- 곽한병, 이기찬(2005). 미혼직장여성의 여가실태 및 장애요인관계 분석. 한국결기과학회지, 5, 37-47.
- 김경원(2004). 질적연구를 통한 독신동기요인과 실태조사. 아동가족치료연구, 3, 95-115.
- 김경원, 김태현(2005). 질적 연구를 통한 독신동기요인과 남녀차이. 대한가정학회지, 43(6), 61-79.
- 김경신, 이선미(1998). 미혼남녀의 결혼관에 나타난 결혼이데올로기. 한국가정학회지, 1(1), 27-43.
- 김경화(2004).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일과 결혼: 대졸미혼여성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6(3), 175-199.
- 김나영, 신영미(2010). 이동성향에 따른 1 인가구의 지역별 분포 특성, 통계청 우수논문.
- 김리영, 노희순(2011). 1~2인가구의 주거선호를 고려한 소형주택 공급방안. 주택산업연구원.
- 김소영(2013). 1 인가구 증가의 의미와 가족정책 과제 탐색. 2013 한국가족학회 춘계학술대회, 99-112.

- 김순옥(2002). 독신의 원가족과의 친족행동 및 관련변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173-184.
- 김순옥(2005). 독신의 복지를 위한 방안 소고.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8, 21-38.
- 김승권, 김유경, 김혜련, 박종서, 손창균, 최영준, 김연우, 이가은, 윤아름(2012). 2012 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 박종서, 김유경, 김연우, 최영준, 손창균, 윤아름(2012). 2012 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철(2011). 미혼율의 상승과 초저출산에 대한 대응방향. 한국개발연구원.
- 김은지(2012). 1 인가구 증가와 주거정책. 2012 가족정책포럼, 1 인가구 증가와 가족정책 조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정책전략센터.
- 김재현, 양승애(2009). 초저출산의 원인과 정책적 함의. 대한여성건강학회, 10(2), 113-133.
- 김정석(2006).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비교분석. 한국인구학, 29(1), 57-70.
- 김혜영(2007). 1 인 가구의 비혼 사유와 가족의식.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1041-1057.
- 김혜영, 선보영, 진미정, 사공은희(2007). 비혼 1 인 가구의 가족의식 및 생활실태조사.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 김혜영, 선보영, 김상돈(2010). 여성의 만혼화와 저출산에 관한 연구: 비혼여성의 일가족 의식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 김혜영, 선보영(2011). 여성의 만혼화와 결혼의향-결정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 12(2), 3-35.
- 김혜선, 신수아(2002). 결혼준비도 척도 개발연구: 기혼남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0(3), 41-53.
- 류경희, 왕석순(2010). 기혼자가 인식하는 30~40 대 미혼여성의 이미지. 한국가정과교육학회, 22(3), 37-54.

- 문선희(2012). 미혼여성의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결혼의향과  
기대결혼연령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7(3), 5-25.
- 문소정(1994). 가족이데올로기. 여성 한국사회 연구회, 4 회 심포지움.
- 문숙재, 윤소영, 차경옥(2005). 여가문화와 가족. 서울. 신정.
- 박경숙, 김영혜, 김현숙(2005). 남녀 결혼시기 연장의 주요 원인: 계층혼,  
성역할분리 규정, 경제조정의 우발적 결합. 인구학, 28(2), 33-62.
- 박민자(2004). 혼인 의미의 시대적 변화. 가족과 문화, 16(1), 109-135.
- 박정현(2011). 한국과 일본의 1 인가구 라이프스타일. 서울경제 10 월호,  
서울연구원.
- 박충선(2002). 독신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163-171.
- 배은경, 박기남, 이남희, 김한나, 양지윤(2010). 생활밀착형 여성가족정책의  
방향 정립을 위한 20-30 대 여성조사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144-168.
- 변미리(2012). 1 인가구 증가와 주거정책. 2012 가족정책포럼, 1 인가구  
증가와 가족정책 조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정책전략센터.
- 변용찬, 김동희, 이송희(2010). 결혼행태 변화와 출산율의 상관성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심영(2002). 독신가구의 경제생활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197-208.
- 신은진, 안건형(2010). 소득별 1 인가구의 거주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국토계획, 45(4), 69-79.
- 신효영, 방은령(2007). 미혼과 기혼 남녀의 결혼관 및 자녀관 비교.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논문집, 494-495.
- 야마다 마사히로(2004). 김주희 역, 패러사이트 싱글의 시대. 성신여자  
대학교 출판부

- 양은주(2005). 고학력 비혼 취업 여성의 일과 삶에 대한 생애사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양명숙(1996). 예비 부모세대의 결혼관과 자녀관 그리고 성역할관에 대한  
연구-대전 지역의 남녀대학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4(2),  
167-181.
- 양정선(2012). 독신의 선택과 노후준비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1), 123-148.
- 어성연, 조희금, 고선강(2010). 전문직 미혼 남녀의 만혼현상에 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2), 1-18.
- 유소이, 최윤지(2002). 성인남녀의 생활시간 실태 및 결정요인 분석.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3(3), 53-68.
- 오창섭, 최성혁(2012). 저출산 원인의 실증분석: 혼인율 하락과 초혼연령  
상승의 경제적 요인. 복지행정논총, 22(1), 91-125.
- 우해봉(2009). 교육이 초혼 형성에 미치는 영향: 결혼 연기 혹은 독신?  
한국인구학, 32(1), 25-50.
- 유가효(1989). 청소년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부부상호작용이 청소년의  
결혼태도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학술논집, 15.
- 유흥준, 현성민(2010). 경제적 자원이 미혼남녀의 결혼연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33(1), 75-101.
- 은기수(1999). 생애과정이 결혼시기에 미치는 영향: 생애사건연쇄분석,  
한국인구학, 22(2), 47-71.
- 은기수(2001). 현대 한국사회의 가족가치관: 결혼에 대한 태도의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겨울호, 24(4).
- 은기수(2005). 미혼에서 결혼으로 이행-최근 우리나라에서 저출산이 갖는  
의미, 보건복지 포럼, 25-35.
- 은기수, 이윤석(2005). 한국의 가족가치관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한국인구학,  
28(1), 107-132.

- 이삼식, 정윤선, 김희경, 최은영, 박세경, 조남훈, 신인철, 도세록, 조숙경, 강주희(2005).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2006).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 및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95-140.
- 이성용(2012). 한국의 혼인상태 변동: 1995~2010년. 가족과 문화, 24(3), 34-64.
- 이성용(2013).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비혼 분석.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3(6), 613-621.
- 이성은, 박홍주, 유정민(2012). 서울시 비혼여성 1인가구 정책지원방안 수립.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2-성평등증진센터-014.
- 이소영, 황선진(2003). 20, 30대 전문직 독신여성의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 6(단일호), 267-281.
- 이수진(2005). 젠더관점에서 본 결혼선택의 규정요인. 노동정책연구, 5(1), 131-154.
- 이영분, 이용우, 최희정, 이화영(2011). 한국사회의 부모의존 독신성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1(3), 5-30.
- 이진하, 최연실(2006). 미혼여성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에 미치는 가족체계의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4), 75-92.
- 이창순(2012). 한국사회 비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38(3), 49-71.
- 장현숙(2002). 독신의 심리적 성향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185-195.
- 장혜경, 김은지, 김영란, 김혜영, 정재훈(2011).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정책전망(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장혜경, 홍승아, 선보영(2012). 가족변화 관련 여성·가족정책의 향후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협동연구총서, 12-03-08(17).

- 정경희, 남상호, 정은지, 이지혜, 이윤경, 김정석, 김혜영, 진미정(2012).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 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재훈(2012). 1 인가구 증가와 주거정책. 2012 가족정책포럼, 1 인가구를  
증가와 가족정책 조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정책전략센터.
- 장진경(2005). 미혼남녀의 결혼관과 출산 및 자녀관에 따른 출산정책 선호도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3(11), 165-183.
- 정희순(2011). 한일양국 1인가구의 사회구조적 특징 연구. 한국일본어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11, (6), 496-501.
- 조희금, 고선강, 어성연(2009). 결혼지연 요인에 대한 사회적 대응방안 마련.  
보건복지가족부.
- 주재선, 김영택, 송치선, 손창균, 임찬수(2012). 2012년 여성가족패널 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진미정, 정혜은(2010).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결혼희망연령에 대한 가족  
가치관의 영향 추세 연구: 2005 년, 2009 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3(3), 31-51.
- 진미정(2013). 30 대 비혼 1 인가구의 삶. 2013 한국가족학회 춘계학술대회,  
1-82.
- 최은영, 박영실(2009). 사회경제적 특성과 지역별 차별 출산력 분석.  
통계개발원, 2009 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Ⅲ권, 176-264.
- 최새은, 옥선화(2003). 30 대 기혼남녀의 초혼연령 결정요인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8(1), 53-73.
- 한경혜(1993). 산업화와 결혼연령 변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가족전략의  
관점에서. 한국사회학, 24, 103-102.
- 한유미, 곽혜경(2004). 현대 한국사회의 출산을 저하와 여성사회참여.  
한국생활과학회지 (충북가정학회지), 13(1), 29-40.

황정임, 김은지, 남원석(2013). 여성가구주가구의 주거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도시지역의 비혼 1 인가구 및 저소득한부모가구를 중심으로,  
여성정책연구원.

서울여성정책 2013. <http://woman.seoul.go.kr/>

여성가족부 2013. [http:// www.mogef.go.kr/](http://www.mogef.go.kr/)

표준국어대사전 2013. [http:// www. stdweb2.korean.go.kr](http://www.stdweb2.korean.go.kr)

통계청 2000, 인구총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통계청 2005, 인구총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통계청, 2010, 인구총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통계청 보도자료. 2012. <http://kostat.go.kr/>

Axinn, W. G., & Thornton, A(1992). The influence of parental resources on  
the timing of the transition to marriage. *Social Science Research*,  
21(3), 261-285.

Bennett, J., & Dixon, M. (2006). Single person households and social policy:  
Looking forwards. Joseph Rowntree Foundation.

Blossfeld, H. P., & Huinink, J(1991). Human capital investments or norms  
of role transition? How women's schooling and career affect the  
process of family form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7(1),143-168.

Davies, L. (2003). Singlehood: Transitions within a gendered world.  
*Canadian Journal on Aging*, 22(4), 343-352.

Esther R. Greenglass & Reva Devins(1982). Factors Related to Marriage  
and Career Plans in Unmarried Women. *Sex Roles*, 8(1), 57-71.

Enoch,L(1987). Never-married women: A Study of Adaptation. Doctoral  
Dissertation . Smith College School for Social Work.

- Glick JE, Ruf SD, White MJ, Gold-scheider F(2006). Educational engagement and early family formation: Differences by ethnicity and generation. *Social Forces*, (84), 1391–1415.
- Goldscheider FK, Goldscheider C(1993). Leaving home before marriage: Ethnicity, familism, and generational relationships.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Madison, WI: 1993.
- Goldscheider, Frances and Calvin Goldscheider(1999). The Changing Transition to Adulthood: Leaving and Returning Home. Thousand Oaks, Calif.: SAGE Publications.
- Trang. Ha, J. T(2011). Feminist Values and Women’s Attitudes Towards Marriage and Childbearing in Singapore. *Southeast Asia*, Summer, 141-155.
- Hiromi Tanaka & Catherine W. Ng(2012). Individualization of Marriage and Work Life Choices: A Study of Never-married Employed Women in Hong Kong and Tokyo. *Asian Women*. 28(1), 85-119..
- James M. Raymo & Hiromi Ono(2007). Coresidence with Parents, Women's Economic Resources, and the Transition to Marriage in Japan. *Journal of Family Issues*, 28(5), 653-681.
- James M. Raymo(2003). Premarital Living Arrangements and the Transition to First Marriage in Japa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5(2), 302-315.
- Jennifer E. Copp, Peggy C. Giordano, Monica A. Longmore, Wendy D. Manning(2013). Living with Parents and Well-being in Emerging Adulthood. *The Center for Family and Demographic Research*, Bowling Green State University, 2013 Working Paper Series.



- Allen, K. R., & Pickett, R. S(1987). Forgotten streams in the family life course: Utilization of qualitative retrospective interviews in the analysis of lifelong single women's family care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7-526.
- Kumiko Nemoto(2008). Postponed Marriage: Exploring Women's Views of Matrimony and Work in Japan. *Gender & Society*, 22(2), 219-237.
- Kyung-Sup, C., & Min-Young, S(2010). The stranded individualizer under compressed modernity: South Korean women in individualization without individualism.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61(3), 539-564.
- Lesthaeghe, R., & Surkyn, J(1988). Cultural dynamics and economic theories of fertility chang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4(1), 1-45.
- Lynn . J., Roona. S., & Fran W(2009). Solo-Living age 25-44: Subjectivities and social change. Centre for Research on Family and Relationship, Annual Conference.
- Marcus L. Briton(2013). race/ Ethnicity, Attitudes, and Living With Parents During Young Adul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5, 995-1013
- Michele Hoffnung(2004). Wanting It All: Career, Marriage, and Motherhood During College-Educated Women's 20s, *Sex Roles*, (5), 711-723.
- Molgat, M., & Vézina, M(2008). Transitionless biographies? Youth and representations of solo living. *Young*, 16(4), 349-371.

- Peter McDonald(2000). Gender Equality, Social Institutions and The Future of Fertility. *Journal of Population Research*, 17(1), 1-16.
- Poortman, A. R., & Liefbroer, A. C(2010). Singles' relational attitudes in a time of individualization. *Social Science Research*, 39(6), 938-949.
- Robert D. Retherford, Naohiro Ogawa and Rikiya Matsukura(2001). Late Marriage and Less Marriage in Japa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7(1), 65-102.
- Stein, P. J. (Ed.). (1981). *Single life: Unmarried adults in social context*. St. Martin's Press.
- Susan J. Ferguson(2000). Challenging Traditional Marriage: Never Married Chinese American and Japanese American Women. *Gender & Society*, 14(1), 136-159.
- Tanaka, H., & Ng, C. W. (2012). Individualization of Marriage and Work Life Choices: A Study of Never-married Employed Women in Hong Kong and Tokyo. *Asian Women*, 28(1), 85-119.
- Virginia G. Lewis & L. DiAnne Borders(1995). Life Satisfaction of Single Middle-Aged Professional Wome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4(5), 74-100.
- White, L. K., & Rogers, S. J(1997). Strong support but uneasy relationships: Coresidence and adult children's relationships with their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1), 62-76.
- Wolfinger NH(2003). Parental divorce and off-spring marriage: Early or late? *Social Forces*, 82(1), 337–353.
- Zhenchao Qian(2012). During the Great Recession, More Young Adults Lived With Parents. Discover Amaerica on a New Century, August, Russell Sage Foundation.

Key statistics(2011). Women and men, Hong Kong:

Statistics Bureau(2011).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Japan

The World Factbook(2011) ; <https://www.cia.gov/...world-factbook/.../2011>

2012. Households and Families: 2010. U.S. Census Briefs. U.S. Census  
Bureau.

## 부록: 설문지

# 여성가족패널조사

- [기존응답자] 여성개인용 설문지 -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과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여성정책 및 가족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여성을 포함한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 및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출연연구소입니다.

본원은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사회 속에서 여성과 가족의 실태와 변화에 대한 대규모 패널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실시·관리되므로 설문내용 및 응답자에 대한 모든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이렇게 모아진 설문지는 전국적으로 수집된 다른 설문지와 함께 통계목적으로만 이용되어집니다.

귀하의 적극적인 참여는 우리 사회 가족의 미래 설계에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설문에 응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조사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한국리서치 장희숙 팀장(02-3014-0120)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

2010. 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구번호	가구원번호	이름

## C. 미혼 여성

※ 다음은 미혼이신 분만 응답해 주십시오.

■ 문1. \_\_님은 현재 어떤 상태이십니까? P0317A

❖ 재학 및 휴학 중이면서 취업을 준비 중인 경우는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휴학 중이다”로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취업 준비 중이다(직업훈련을 위한 학원수강 포함)
- ②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휴학 중이다
- ③ 학교를 마치고 진학(유학)을 준비하고 있다(진학·유학을 위한 학원수강 포함)
- ④ 일을 하고 있다
- ⑤ 집안일을 하고 있다
- ⑥ 아무 일도 안하고 있다
- ⑦ 기타 P0317B

■ 문2. \_\_님은 결혼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P0318

- ① 있다
- ② 없다 → 3로 가십시오.
- ③ 생각해 본 적이 없다 → 4로 가십시오.

□ 문2-1. \_\_님은 조만간 결혼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P0319

- ① 있다 → 4로 가십시오.
- ② 없다 → 3로 가십시오.

■ 문3. \_\_님이 결혼할 의향 혹은 계획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P0320A

- ① 독신생활이 좋아서
- ② 학업 때문에
- ③ 직장생활에 지장을 줄 것 같아서
- ④ 실업상태이거나 고용이 불안정해서
- ⑤ 나의 건강이나 장애로 인해
- ⑥ 장애 또는 만성질환을 가진 가족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 ⑦ 가사나 육아의 부담이 클 것 같아서
- ⑧ 경제적 여건이 안 되어서
- ⑨ 적합한 상대가 없어서
- ⑩ 결혼을 하기에 적절한 연령이 아니라서
- ⑪ 기타 P0320B

## 여성가족패널조사

- 문4. \_\_\_\_님은 평일 저녁시간을 주로 어떻게 보내십니까? 아래 보기 중,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하는 순서대로 2가지를 골라 응답해 주십시오.

⇒ 1순위 **P0321A**    ⇒ 2순위 **P0321B**

- |                      |                            |
|----------------------|----------------------------|
| ① 가사일                | ② 회사잔무처리(업무와 관련된 일)        |
| ③ 휴식                 | ④ 운동/헬스                    |
| ⑤ 동호회 활동             | ⑥ TV시청/영화보기                |
| ⑦ 신문/잡지보기            | ⑧ 컴퓨터/게임                   |
| ⑨ 술자리                | ⑩ 학습활동(어학, 컴퓨터수강, 자격증시험 등) |
| ⑪ 친구/동료와의 만남         | ⑫ 문화생활(영화, 연극, 미술관 관람 등)   |
| ⑬ 여행                 | ⑭ 종교생활                     |
| ⑮ 취미활동(등산, 댄스, 그림 등) | ⑯ 쇼핑                       |
| ⑰ 해당순위 없음            | ⑰ 기타 <b>P0321C</b>         |

- 문5. \_\_\_\_님은 주말에는 주로 어떻게 보내십니까? 아래 보기 중,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하는 순서대로 2가지를 골라 응답해 주십시오.

⇒ 1순위 **P0322A**    ⇒ 2순위 **P0322B**

- |                      |                            |
|----------------------|----------------------------|
| ① 가사일                | ② 회사잔무처리(업무와 관련된 일)        |
| ③ 휴식/수면              | ④ 운동/헬스                    |
| ⑤ 동호회 활동             | ⑥ TV시청/영화보기                |
| ⑦ 신문/잡지보기            | ⑧ 컴퓨터/게임                   |
| ⑨ 술자리                | ⑩ 학습활동(어학, 컴퓨터수강, 자격증시험 등) |
| ⑪ 친구/동료와의 만남         | ⑫ 문화생활(영화, 연극, 미술관 관람 등)   |
| ⑬ 여행                 | ⑭ 종교생활                     |
| ⑮ 취미활동(등산, 댄스, 그림 등) | ⑯ 쇼핑                       |
| ⑰ 해당순위 없음            | ⑰ 기타 <b>P0322C</b>         |

- 문6. 집안일을 하루 평균 몇 시간쯤 하십니까?

(1) 평일 (하루 평균)	(2) 주말 (하루 평균)
____ 시간 <b>PP0323</b> 분	____ 시간 <b>PP0324</b> 분

- 문7. \_\_\_\_님은 여가활동을 하루 평균 몇 시간쯤 하십니까?

❖ 여가활동이란 하루 24시간의 생활시간에서 노동시간과 생리적 의미의 기본 필요시간(수면 시간, 식사시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자유 시간에 정서적 자유와 휴식, 즐거움을 추구하는 자유 활동으로서 활동 자체가 목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1) 평일 (하루 평균)	(2) 주말 (하루 평균)
____ 시간 <b>PP0325</b> 분	____ 시간 <b>PP0326</b> 분

→ [K. 임신 및 출산경험과 자녀계획]으로 가십시오.

## P. 본인의 부모님과의 관계

■ 문1. 현재 \_\_님의 아버님 혹은 어머님 두 분 모두 살아계십니까? **P03167**

- ① 두 분 모두 계신다
- ② 아버님만 계신다
- ③ 어머님만 계신다
- ④ 두 분 모두 돌아가셨다 → [Q. 남편의 부모님과의 관계]로 가십시오.

■ 문2. \_\_님의 아버님 혹은 어머님의 연세는 올해 어떻게 되십니까?

- ❖ 현재 생존해 계신 부모님만 응답해 주십시오.
- ❖ 만 나이가 아닌 한국 나이로 응답해 주십시오.

⇒ 아버님 **P03168A** 세  
 ⇒ 어머님 **P03168B** 세

■ 문3. \_\_님의 아버님 혹은 어머님은 \_\_님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형제자매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P03169**

- ❖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귀댁과 함께 살고 계신다면 나와 함께 함께 살고 계신다에 응답해 주십시오.

- ① 나와 함께 살고 계신다 → 3-1로 가십시오.
- ② 다른 형제자매와 함께 살고 계신다 → 3-3으로 가십시오.
- ③ 둘 다 아니다 → 3-4로 가십시오.

□ 문3-1. \_\_님께서 아버님 혹은 어머님과 같이 사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P03170M\_1~12**

- ① 부모님이 연로하여서
- ② 부모님 중의 한 분이 돌아가셔서
- ③ 부모님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 ④ 형제 중 만이어서
- ⑤ 다른 형제가 없어서
- ⑥ 나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돼서
- ⑦ 부모님의 경제적인 이유로
- ⑧ 육아에 도움을 받으려고
- ⑨ 가사에 도움을 받으려고
- ⑩ 아직 결혼하지 않아서
- ⑪ 기타 \_\_\_\_\_





## R. 본인의 형제자매

※ 다음은 형제자매가 있으신 분만 응답해 주십시오.

※ 형제자매가 없고, 현재 배우자가 있는 분(일시적 비동거, 사실혼 포함), 사별, 별거 상태이신 분은 [S. 남편의 형제자매]로 가십시오.

※ 형제자매가 없고, 현재 미혼, 이혼이신 분은 [T. 가족관련 가치관]으로 가십시오.

■ 문1. 지난 조사 시 전체 형제자매가 \_\_\_\_\_명이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INFO\_SHEET 참조)

지난 조사이후 \_\_\_\_\_님의 형제 자매수에 변화가 있으십니까? P03204

- ① 있다 → 1-1로 가십시오.
- ② 없다 → 2로 가십시오.

□ 문1-1. 있으시다면 현재 형제자매는 몇 명이십니까?

❖ 본인을 포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P03205 \_\_\_\_\_명

□ 문1-2. 형제자매 수에 변화가 생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출생 P03206M\_1 -6
- ② 부모님 재혼
- ③ 입양
- ④ 사망 및 실종
- ⑤ 기타 \_\_\_\_\_

■ 문2. \_\_\_\_\_님은 (친정)형제자매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받습니까? P03207

❖ (친정)형제자매 중 한 명이라도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받는다면 예로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예
- ② 아니오

■ 문3. \_\_\_\_\_님은 (친정)형제자매와 서로 간에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터놓고 대화하는 편입니까?

❖ (친정)형제자매 중 한 명이라도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터놓고 대화한다면 대화한다고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자주 대화한다 P03208
- ② 가끔 대화한다
- ③ 거의 대화하지 않는다
- ④ 전혀 대화하지 않는다

## 여성가족패널조사

■ 문4. \_\_님은 (친정)형제자매와 부모님이나 집안일에 관하여 서로 상의하는 편입니까? **P03209**

❖ (친정)형제자매 중 한 명이라도 집안일과 관련하여 서로 상의를 한다면 상의한다고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자주 상의한다
- ② 가끔 상의한다
- ③ 거의 상의하지 않는다
- ④ 전혀 상의하지 않는다

■ 문5. \_\_님은 (친정)형제자매와 부모님 부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나누고 계십니까? **P03210**

❖ (친정)형제자매 중 한 명이라도 부모님 부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나누고 있다면 예라고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예
- ② 아니오
- ③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

■ 문6. \_\_님께서 (친정)형제자매와 얼마나 되는 거리에 살고 계십니까? 각각의 거리에 살고 계  
시는 형제자매 수를 응답해 주십시오. **P03211M\_1-5**

- ❖ 차로 걸리는 시간은 일반승용차로 쉬지 않고 이동할 때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 해당 형제자매가 없으신 분은 0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 어디에 사는지 잘 모르는 형제자매는 제외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내 용	해당 거리에 살고 있는 형제자매 수
(1)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	⇨ _____명
(2) 차로 30분 이내 거리	⇨ _____명
(3) 차로 30분 이상 1시간 이내 거리	⇨ _____명
(4) 차로 1시간 이상 2시간 이내 거리	⇨ _____명
(5) 차로 2시간 이상 거리	⇨ _____명

## T. 가족관련 가치관

■ 문1. 다음의 내용에 대해 \_\_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P03218A-N

내 용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2) 결혼은 집안배경이 비슷한 사람과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3) 결혼은 일찍 하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4) 결혼하면 자녀를 일찍 갖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5)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6)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7)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①	②	③	④
(8)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동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9) 결혼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다	①	②	③	④
(10) 결혼보다는 나 자신의 성취가 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11) 결혼을 하면 나 자신의 생활이 구속 받는다	①	②	③	④
(12) 부부생활에서 성적만족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13) 남편 이외의 이성친구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14) 남편이 외도를 하면 이혼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 문2. 가족 내 역할에 관한 다음의 각 내용에 관해 \_\_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P03219A-F

내 용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남자는 직장을 가지고 여자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①	②	③	④
(2) 주부도 직장을 다녀야 부부관계가 평등해진다고	①	②	③	④
(3) 취학 전 자녀를 둔 주부가 일을 하면 자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4)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도 공평히 분담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5) 부부라도 수입은 각자 관리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6) 같이 사는 주부는 부부공동명의로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 여성가족패널조사

- [공통] 가구용 설문지 -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과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여성정책 및 가족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여성을 포함한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 및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출연연구소입니다.

본원은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사회 속에서 여성과 가족의 실태와 변화에 대한 대규모 패널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실시·관리되므로 설문내용 및 응답자에 대한 모든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이렇게 모아진 설문지는 전국적으로 수집된 다른 설문지와 함께 통계목적으로만 이용되어집니다.

귀하의 적극적인 참여는 우리 사회 가족의 미래 설계에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설문에 응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조사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한국리서치 장희숙 팀장(02-3014-0120)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

2010. 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구번호	가구원번호	이름

※ 가구용 설문은 여성 가구원 중에서 가구와 관련된 질문에 응답할 수 있는 가구원이 응답해 주십시오. 가구를 대표하는 가구주와 다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A. 가구원 및 가족

■ 문1. 지난 조사 당시 귀택에 함께 거주했던 가구원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각 가구원에 대해서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INFO\_SHEET 참조)

### ※ 가구원

혈연이나 주민등록과는 상관없이 가구 내에서 동거하면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구성원을 말합니다.

#### 〈가구원〉

- 동거, 사실혼 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포함
- 함께 살고 있는 친·인척 전원(파출부, 운전사 등 고용인과 하숙생 등의 비친·인척 제외)
- 다른 지방 근무(해외 근무 포함), 학업(해외 유학 포함), 군복무, 치료 및 요양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떨어져 살고 있는(다시 돌아올 것으로 전제된) 직계가족

#### 〈비가구원〉

- 함께 살지 않으며 경제적으로 독립한 미혼자녀
- 분가한 기혼자녀
- 같이 살고 있는 파출부, 운전사 등 고용인과 하숙생 등의 비친인척

❖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평소에 귀하와 거주를 같이 하는 가족 및 친·인척이 모두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 인척관계가 아닌 동거인,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도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파출부, 운전사 등 고용인과 하숙생 등은 제외)

□ 문1-1. 이 분의 성명은 \_\_\_\_\_님이 맞습니까? ⇨ **H0321\_A1~A9**

□ 문1-2. 이 분은 현재 귀택에서 함께 살고 계십니까? **H0322\_A1~A9**

❖ 다른 지방 근무(해외 근무 포함), 학업(해외 유학 포함), 군복무, 치료 및 요양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떨어져 살고 있어 다시 돌아올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시다면 일시적으로 따로 살고 있다에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① 함께 살고 있다                    | → 1-3으로 가십시오.  |
| ② 일시적으로 따로 살고 있다              | → 1-2-1로 가십시오. |
| ③ 결혼, 이혼, 경제적 독립 등의 사유로 분가하였다 | → 1-2-3로 가십시오. |
| ④ 지난 조사 이후 사망하였다              | → 1-2-6로 가십시오. |

□ 문1-3. 이분은 이 맥의 가구주와 어떤 관계이십니까?

⇒ H0327\_A1~A9

※ 가구주

가구주는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면서 해당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거나 사실상 생계유지를 위한 비용을 조달하는 사람” 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전에 이런 엄격한 정의를 제시하지 않고 응답자가 가구주라고 자복하는 가구원(응답자 본인 포함)을 가구주로 간주합니다.

《가구주와의 관계 코드표》

10. 가구주	20. 가구주의 배우자
01. 가구주의 할아버지	03. 가구주의 배우자의 할아버지
02. 가구주의 할머니	04. 가구주의 배우자의 할머니
05. 가구주의 아버지	07. 가구주의 배우자의 아버지
06. 가구주의 어머니	08. 가구주의 배우자의 어머니
11. 가구주의 첫째 자녀	21. 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12. 가구주의 둘째 자녀	22.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13. 가구주의 셋째 자녀 (넷째=14, 다섯째=15, ...)	23. 가구주의 셋째 자녀의 배우자 (넷째=24, 다섯째=25, ...)
31. 가구주의 형제/자매 (첫째 =31, 둘째=32, ...)	41. 가구주 배우자의 형제/자매 (첫째=41, 둘째=42...)
51. 가구주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첫째 =51, 둘째=52, ...)	61. 가구주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첫째=61, 둘째=62...)
111. 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	211. 가구주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112. 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둘째 자녀 (셋째=113, 넷째는 114, ...)	212. 가구주 첫째 자녀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셋째=213, 넷째는 214, ...)
121.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첫째 자녀	221. 가구주 둘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122.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둘째 자녀 (셋째=123, 넷째는 124, ...)	222. 가구주 둘째 자녀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셋째=223, 넷째는 224, ...)
131. 가구주의 셋째 자녀의 첫째 자녀	231. 가구주 셋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132. 가구주의 셋째 자녀의 둘째 자녀 (셋째=133, 넷째는 134, ...)	232. 가구주 셋째 자녀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셋째=233, 넷째는 234, ...)
996. 가구주의 열째 이상 자녀 및 그 배우자, 가구주의 열째 이상 자녀의 자녀 및 그 배우자	
997. 기타 친인척 (숫자에 관계없이 동일 번호)	998. 인척관계가 아닌 동거인 (숫자에 관계없이 동일 번호)

□ 문1-4. 이 분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H0328\_A1~A9

① 남자

② 여자

■ 문3. 귀 댁이 살고 있는 주택은 자가입니까? 혹은 전세 또는 월세입니까? **H0341**

❖ 무상에는 정부 혹은 교회로부터의 제공받은 주택, 회사 사택 등이 포함됩니다.

- |             |                |
|-------------|----------------|
| ① 자가        | → 3-1로 가십시오.   |
| ② 전세        | → 3-2로 가십시오.   |
| ③ 보증금 있는 월세 | → 3-3-1로 가십시오. |
| ④ 보증금 없는 월세 | → 3-3-2로 가십시오. |
| ⑤ 사글세       | → 3-3-2로 가십시오. |
| ⑥ 무상 및 기타   | → 4로 가십시오.     |

□ 문3-1. 이 집의 시가는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 **H0342A** \_\_\_\_\_ 만원  
→ 3-4로 가십시오.

□ 문3-2. 전세 보증금은 얼마입니까?

→ **H0342B** \_\_\_\_\_ 만원  
→ 3-4로 가십시오.

□ 문3-3. 보증금 및 월세는 얼마입니까?

□ 3-3-1. 보증금  
⇒ **H0342C** \_\_\_\_\_ 만원

□ 3-3-2. 월세

❖ 사글세를 목돈으로 내시는 경우 월평균 금액으로 나누어 응답해 주십시오.

⇒ **H0342D** \_\_\_\_\_ 만원  
→ 3-4로 가십시오.

□ 문3-4. 이 집은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H0237M 1-3**

- ❖ 해당되는 가구원 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 ❖ 공동 명의인 경우 해당되는 가구원 번호를 모두 기입하여 주십시오.
- ❖ 전세 혹은 월세의 경우 전·월세 계약자가 명의자입니다.
- ❖ 가구원이 아닌 경우 귀하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 \_\_\_\_\_ ⇒ \_\_\_\_\_ ⇒ \_\_\_\_\_

# 여성가족패널조사

- [기존응답자] 일자리용 설문지 -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과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여성정책 및 가족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여성을 포함한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 및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출연연구소입니다.

본원은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사회 속에서 여성과 가족의 실태와 변화에 대한 대규모 패널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실시·관리되므로 설문내용 및 응답자에 대한 모든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이렇게 모아진 설문지는 전국적으로 수집된 다른 설문지와 함께 통계목적으로만 이용되어집니다.

귀하의 적극적인 참여는 우리 사회 가족의 미래 설계에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설문에 응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조사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한국리서치 장희숙 팀장(02-3014-0120)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

2010. 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구번호	가구원번호	이름



## B. 지난 조사 당시 일자리 중 지금도 가지고 있는 일자리 (임금근로자 일자리)

- 문1. \_\_님께서는 지난 조사 당시 일자리의 정규직/비정규직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INFO \_ SHEET 참조) 지난 조사 당시와 비교해 현재 변한 내용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변화된 내용을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지난 조사 시 응답내용	지난 조사 시 바른 응답내용	변화 여부	현재 내용
■ 문1. 정규직/비정규직 여부			① 있었다 ② 없었다	P03236C 1~2

- 문1-1.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가 바뀐 응답자만) 그렇게 바뀌게 된 것은 본인이 원했기 때문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P03237 1~2

- 문1-2. (현재 비정규직인 응답자만) \_\_님께서는 정규직 일자리로 전환을 원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P03238 1~2

- 문2. \_\_님께서는 지난 조사 당시 일자리의 전일제/시간제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INFO \_ SHEET 참조) 지난 조사 당시와 비교해 현재 변한 내용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변화된 내용을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지난 조사 시 응답내용	지난 조사 시 바른 응답내용	변화 여부	현재 내용
■ 문2. 전일제/시간제 여부			① 있었다 ② 없었다	P03240C 1~2

- 문2-1. (전일제, 시간제 여부가 바뀐 응답자만) 그렇게 바뀌게 된 것은 본인이 원했기 때문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P03241 1~2

- 문2-2. (현재 시간제인 응답자만) \_\_님께서는 전일제 일자리가 있다면 그 일자리로 옮기시겠습니까?  
① 예 → 3으로 가십시오. P03242 1~2  
② 아니오 → 2-3으로 가십시오.

- 문2-3. 전일제 일자리로 옮기지 않으시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P03243A 1~2
- |                   |                       |
|-------------------|-----------------------|
| ① 가사 때문에          | ② 육아 또는 자녀교육 때문에      |
| ③ 건강상의 이유로        | ④ 여가시간을 즐기기 위해        |
| ⑤ 다른 일자리를 병행하기 위해 | ⑥ 학업 또는 직업훈련을 병행하기 위해 |
| ⑦ 현재 일에 만족하기 때문에  | ⑧ 기타 _____            |

■ 문5. \_\_\_\_님께서 그 일자리에서 일주일에 며칠, 하루에 평균 몇 시간 일을 하십니까?

❖ 초과 근로 시간을 포함해 실제로 근무하시는 시간을 응답해 주십시오.

⇨ 주당 평균 근로일수 \_\_\_\_ P03250A 1-2 \_\_\_\_ 일

⇨ 하루 평균 근로시간 \_\_\_\_ P03250B 1-2 \_\_\_\_ 시간

■ 문6. 이 일자리에서 급여는 어떻게 받으십니까? P03251A 1-2

- ❖ 수령시기 기준이 아닌 지급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 예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급여가 시간 단위로 계산된다면 급여를 받는 시점이 언제든 상관없이 시간급에 해당합니다.
- ❖ 월급제의 경우도 급여가 월 단위로 정해져 지급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매달 급여를 받더라도 급여액은 연봉계약에 의해 1년 단위로 정해질 경우 월급이 아니라 연봉급에 해당합니다.
- ❖ 실적급은 고정된 급여가 없이 전적으로 실적에 의해 급여액이 산정되는 경우입니다.

- ① 시간급
- ② 일당
- ③ 주급/격주급
- ④ 월급
- ⑤ 실적급
- ⑥ 일시불
- ⑦ 연봉급
- ⑧ 기타 \_\_\_\_\_

■ 문7. 이 일자리의 한 달 평균 급여(연말 성과급과 보너스 포함)는 어느 정도입니까?

❖ 세금을 공제하지 말고 응답해 주십시오.

⇨ 월평균 \_\_\_\_ P03252 1-2 \_\_\_\_ 만원

## Abstract

# Living Conditions and Marriage Intention a Unmarried Women in Their 30s and 40s

– Comparisons of Living Alone and Living  
with Family

Hye, Chi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Changes in marriage have drawn much attention as they have been pointed out a key factor of low fertility. Nonetheless, empirical research and policy recommendation on unmarried women has been quite limited.

This study, giving attention to the late marriages of women, aims to explore living conditions and marriage intention of unmarried women and compare them according to the types of living arrangements.

This study examined not only differences of living conditions, values, and marriage intention between living alone and living with family among unmarried women in her 30s–40s, but also the determinants of type of living arrangements intention.

This Study used a recent nationwide survey on women and families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and the

final sample consisted of 49 unmarried women who lived alone and 191 women who lived with family. The logit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 likelihood of living alone between in unmarried women in their 30s–40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unmarried women who lived alone and who lived with family had differences in terms of age, having parents alive, housing tenure type, having a job, reasons of not having a marriage and attitudes toward achievement and necessity of marriage.

Second, unmarried women with a job were more likely than unmarried women without a job to live alone. However, the effect of monthly income, age and education level is not found.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living arrangements of unmarried women in their 30s–40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family policy

Future research should pay more attention on type of living of unmarried women in developing conceptual arguments and conducting empirical analysis regarding marriage and its related topics.

**Keywords :** achievement orientation, living alone, living arrangement, living with family, marriage intention, unmarried women

**Student Number :** 2011–23707